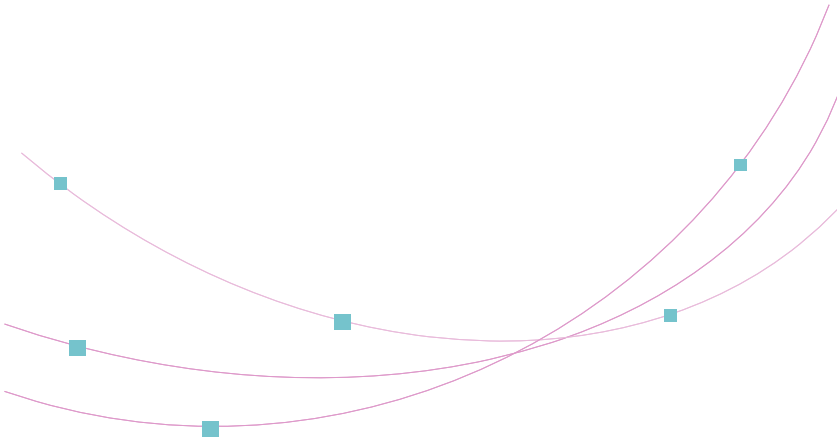


## 살림의 농사꾼, 땀과 삶의 기록



모심과 살림연구소

##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운동으로서 한살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된 모심과살림연구소는 현대산업사회 물질문명에서 비롯된 생명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 및 조사와 교류,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402호

전화 | 02-6931-3606~9 | 전송 | 02-2269-1309

블로그 | <http://www.mosim.or.kr>

전자우편 | [mosim@hansalim.or.kr](mailto:mosim@hansalim.or.kr)

\_\_\_차례

글쓴이의 말 \_ 1

딸기에서 찾은 인생의 기쁨  
강수옥 생산자 \_ 3

감귤과 EM농법의 선구자  
이영민 생산자 \_ 37

마음이 중요하다  
정광영 생산자 \_ 67

땅이 부르는 소리  
최재명 생산자 \_ 101

인터뷰 참가자들의 후기 \_ 133



## 글쓴이의 말

한살림에서 1세대 생산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자는 의견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생산자 구술모임(사랑방 모임)이 결성되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을 방문했습니다. 2010년부터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또 정광영 생산자를 모시고 조합원과 실무자가 함께 한 강연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한살림의 여러 분야에서 추천된 분들을 회의를 통해, 제주도의 감귤 생산자 이영민 선생, 음성의 쌀 생산자 최재명 선생, 부여의 딸기 생산자 강수옥 선생 이렇게 세 명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인터뷰는 각 생산자마다 2회씩 진행했습니다. 두 번의 인터뷰 중, 한 번은 녹화를 함께 하여, 생생한 인터뷰 현장을 그대로 담고자 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사랑방 모임 기획팀은 현재의 한살림을 있게 한 1세대 생산자 중에서, 우선은 연령순으로 하자는 데 합의 하였고,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한살림에는 여러 면에서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와 비중을 갖는 생산자는 많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령과 병으로 소중한 생산자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연령을 첫 번째 기준으로 두어 선정하고, 일을 진행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로 나온 것이 이번에 발간하는 『한살림 1세대 생산자 구술조사 자료집』입니다.

한살림이 출발하는데 있어, 어떤 의미로든 1세대 생산자의 힘과 용기,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2세대, 3세대의 생산자가 나올 수 있었고, 우리 소비자 조합원들 또한 생활 속의 운동인 한살림 운

동을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계한 분들의 2년여에 걸친 열과 성의 덕분에, 이러한 작업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스물다섯 살. 정열 가득한 청년인 한살림이었기에 충분히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기뻐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멋진 청년 한살림. 그가 자랄 수 있도록 이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정하고 흔들림 없이 끈게 나간 그분들 덕분에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꿈에 대해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목적에 그들 인생을 모두 던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이 기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한살림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 그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밥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1세대 구술모임(사랑방 모임)을 마치며, 다시 한 번 그분들께 “그대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덕분에 한살림이 더욱 좋아졌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도 함께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조합원과 실무자 모두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윤 선 혜

# 딸기에서 찾은 인생의 기쁨

강수옥 생산자





**가족에게**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 한살림 사람들. 그렇게 한살림을 알고 시작한 조합원들이 제일 먼저 만나 인연을 맺게 되는 작물은 아마 딸기인 듯 싶다. 더구나 흐르는 물에 바로 씻어 먹는 딸기는 시중 것을 사서 먹기는 더욱 조심스럽다. 특히 주부는 내 아이들이 먹을 것이라면 시장 볼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저 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재배된 작물을 찾고 선택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일 것이다. 봄이 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과일인 딸기. 여기에는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다. 가족에게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고 맛있는 딸기를 먹고 싶어하는 조합원들은 강수옥 생산자의 딸기로부터 한살림을 시작한다. 새내기 조합원이 되어 방문한 그의 딸기밭에서 직접 따먹었던 딸기의 추억. 그건 어린 날의 상큼함이다. 조합원들은 그때의 기억처럼 신선하고 향긋한 딸기의 맛을 오래도록 기억한다.

그리고 언제나, “이 가격만큼 받으면 됐다.” 하며, 함께 농사지은 생산자들의 의견과 마음을 다독여, 안전하고 맛있는 딸기를 적정선의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한 그의 고마운 마음을 알고 있다. 도시 사람들이 자연의 무언가를 경험하기는 어렵다. 그저 무언가를 바라보고 관찰할 뿐. 본다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차이. 흙을 만지고 느끼고, 그곳에서 작물을 키워낸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경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딸기. 예쁜 딸기. 맛있는 딸기. 향기 가득한 유기농 딸기를 곱게 키워,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강수옥 생산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최고의 유기농 딸기를 생산하는, 어느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맛을 지닌 한살림 딸기 생산자 강수옥, 조계숙 부부는 부여군 조촌면 신암리에 살고 있다. 비교적 널찍한 지방도로를 달려가다 갑자기, 좌회전을 하게 되고 농토와는 상관없는 공장 단지를 지난 곳에 그들의 집과 딸기밭이 있다. 그들을 알고 지내며 항상 궁금했다. 딸기는 그들이 생산자 부부에게 무엇일까? 단순히 이 작물 저 작물 해보다가 마지막에 선택된 것일까? 딸기를 키우고 수확하며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일까?

그래서 “선생님에게 딸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때, 그들의 얼굴은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황송한... 흔히들 사람들이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를 말 할 때의 벅찬 느낌이랄까, 절대적인 상대에 대해 느끼는 황홀함이랄까. “예뻐, 아까워.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어떤 때는 그만, 출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도 해”

딸기 이야기를 하면 부부의 얼굴은 빛난다. 눈빛은 반짝반짝, 얼굴 전체가 웃음으로 환해진다. 그렇다. 그들에게 딸기는 사랑이다.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 예쁘고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 사랑, 그 자체이다. 좋은 사

람한테만 주고 싶다는 딸기. 한살림 사람에게…….

## 딸기는 내 인생의 설렘

고령에도 지치지 않고, 새벽에 딸기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으로부터 뿌듯함이 솟아오른다는 그들이. “짜증나거나 힘든 것은 없어요. 딸기를 보면, 아, 딸기가 익었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죠. 그 어떤 내가 노력한 보람이 거기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성취욕이랄까 그런 감정이 올라오지. 딸기농사가 힘은 들어도, 좋은 딸기를 보면 나를 대신해주는 어떤 존재 같다고 느껴져요. 금전적 보상이 있어 즐겁지만 농사 잘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힘든 것 보다는 보람과 즐거움을 더 많이 갖게 하는 딸기농사. 딸기를 재배하며 싫증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생산자들끼리는 “딸기는 재미로 하는 거야. 어디 딸기 귀신이 우리를 농아주기나 하나” “딸기농사 지을 때는 병나고 싶어도 병이 나지 않아.” 하며 웃는다. 지금까지 감기라도 걸려, 혹시 아프더라도, 딸기 수확 철에 딸기를 따지 못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만큼 딸기는 매력 있고 묘한 존재로 그들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한때는 집 위에 있는 밭에 배나무도 심어, 정말 맛있는 배를 생산했던 강수옥 생산자는, “우리가 딸이여. 배는 남한테 인심 좋게 주어도, 딸기는 그러질 못해요.” 한다. “그럼요. 딸기는 배처럼 그렇게 못줘요. 아파 누워 꼼짝 못하고 있다가도 수확 철이 되면 딸기는 따러 갔거든. 이상하게 배는 딱딱 쥐도 딸기는 그렇게 안돼요.” 그의 아내의 말이다.

“무어든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희망이라 생각하면 즐거워지고 병도 나지 않아요. 우리는 딸기를 그런 마음으로 재배하고 출하합니다.” 딸기는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 고마운 존재이다. 평생을 두고 그들 부부가 가꿔왔고, 또 가지고 가야 할 존재. 그래서 그들은 잘 익은 딸기를 수확할 때는 가슴이 뛰고, 그 딸기를 조합원에게로 보낼 때에는 웬지 보내고 싶지 않은, 그냥 곁에 두고 아끼고 싶은, 가슴 떨리게 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 어린 시절, 어머니의 추억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리에서 태어난 생산자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네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밑의 동생도 어릴 때 어머니의 뒤를 따라 얼마 못 살고 갔다. 아버님은 2~3년 있다가 재혼했다. 그보다 열다섯 살 위인 새어머니는 초혼이었다. 그래 그랬겠지만 새어머니는 그에게 결코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다.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과 정을 알지 못하고 성장했다. 계모는 웬지 서먹해 하고, 전실 자식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다. 어쩌면 그런 계모에게 따뜻한 정을 기대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친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과 머릿속 어디쯤에는 남아 있었다. 유년기에 그는 무척 울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거겠죠.” “‘그렇게 울더니만 엄마가 일찍 가셨네.’ 라고 이웃 어른들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상당히 일찍 말이에요. 생각도 안날 정도야. 크면서 가끔,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고,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어머니에 대한 흐릿한 기억이 떠오른다.

“요즘처럼 말하면, 어머니가 이혼을 했든, 엄마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든 간에, 살아 있으면 좋은 거야. 암만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다는 거는 죽은 것과는 아주 다르잖아요. 극과 극이라 할 수 있죠. 뭐, 용서니 뭐니를 떠나서 살아 있다는 것은 달라요. 나는 참, 한 번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 얼굴을 말이야…….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말입니다. 지금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말하는 그의 얼굴이 쓸쓸하다. “아, 저 사람이 우리 엄마 같아. 우리 엄마가 그랬지…….” 하는 희미한 기억. “우리 어머니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아주 오래된 사진. 굉장히 예쁘셨어요. 그걸 지금 확대해서 제사 지낼 때 쓰고 있어요. 별로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말이에요,” 그는 가끔 생각한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아버지가 재혼 하시니까 계모하고 살기가 굉장히 갑갑하잖아요. 그래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사촌하고 살기도 하고.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때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주 내가, 오히려 잊어버렸으면 좋을 그런 시절이야.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고 그랬어요. 혼자서…….” 그랬단다.

“새로 들어오신 우리 어머니가 계모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 무엇인가는 계속 있는 것 같아. 어린 내가 친자식은 아니라 해도,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나한테 참 좋았을 거라고. 내가 널 낳은 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다. 아이니까 혼낼 건 혼내면서 사랑을 조금이라도 주었다면 내

가 더 감명을 받고 그랬을 거야. 어린애잖아. 그 부분을 생각하면 좀 아쉽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도 부러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계모는 모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인간적으로나 여성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정마저도, 어린 그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누구에게나 주는 스스럼없는 정쯤은 기대할 수 있는 어린 아이에게 그러지 않은 새어머니.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스스로 죽어버리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갖고 가. 도시락을 말이에요. 싸주지를 않는데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말은 못하고. 뭐,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어땠을까? 그 마음이. 친구들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어린아이. 마음이 싸하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언제나 반마다 한두 명 있던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먹었던 점심시간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웃도 좀 깔끔하게 입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아주 컸을 때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지만,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그런 것도 참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동생들에게 ‘너의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입니다. 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를 생각하기 싫단 말이야. 아주 싫어요.” 애써 태연히 말하지만 쓸쓸하다. 칠순의 나이가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마음 아픈 기억은 어쩔 수가 없나보다.

“새어머니는 누가 나에게 대해 물으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배 아프지 않고 낳은 아들이야’ ” 그런 무심한 말들이, 부모 사랑을 받고 싶

은 어린 나이의 아이에게 영향을 주어, 청년기까지 그는 『장화홍련전』 등과 같은 계모와 자식이 나오는 이야기는 읽지 않았다.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린 그 나이의 세상을 향한 표현방식이었을 거다. 그는 지금도 계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다루는 연속극이나 영화는 보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도 늙고 보니 계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그 분도 힘들었으리라. 처녀로 시집와 주변에 지켜보는 시선은 많고,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생각이, 자식을 키워 결혼시키고 나니 새삼스레 든다고 한다. 언제나 흐르는 시간은 좋다. 누구에게나 생각하는 여유와 되새겨 보는 추억을 주므로.

새어머니가 낳은 동생들과는 어쩔 수 없이 다르게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을 그런대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보살핌이었다. 할머니는 다른 형제나 사촌 형제와는 다르게 그를 무척 사랑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평등하지 않게, 나만 특별하게, 사촌들과 차이 나게 사랑하시는 것이 싫었어요. 할머니를 미워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일방적인 것은 싫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과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갖고 싶었던 그는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도 그런 마음으로 거부했다. 현재도 무슨 일에서든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구부러지지 않는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회고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이런 기억과 형편은 젊은 날의 그를 방황하게 한다.

그의 아버지는 마음씨 좋고 놀기 좋아하는 한량이었다. 아버지의 재혼 후, 그는 때론 할머니와 때로는 사촌들과 살기도 하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현재 살고 있는 곳 근처인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다. 아버님에 대한 그의 기억을 듣는다.

##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잘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놀러 다니며, 논이나 팔아 탕진하고.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겠다. 어떤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일가친척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친척 집안들의 가세가 기울어갔고 우리 집의 경제 형편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무엇 하나 허투루 쓰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다행이다 할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그게 뭐 그리 좋았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매일을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들에게 최소한도로, 재산은 물려주지 못할 지라도 부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 뿐인 아들인, 원율이를 키울 때도, 늘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교육했어요. 우리 부모 모습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된 셈이지요.”

“우리 집안에서 나만 돌출된 강 씨라고 해요. 다들 나보고 유난하다고 돌 강 씨라고 불렀어요. 친척들하고는 다른 생활을 했기에 아마 그렇게들 얘기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노름하고 오입하는 것이 폐가망신의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집안이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이유로. 나는 어쨌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생각한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책을 많이 읽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할머니는 대단한 성격과 기개를 가지셨다. 아버지가 자꾸 집안을 기울게 하고 돈도 탕진하고 그러니까, 그의 25살 무렵 어느 날, 할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그만 살겠다. 더 살아 봐야 너희들에게 짐이 될 테니까.”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죽음을 선언한 셈이다. 그리고는 얼마 뒤에, 수면제를 사다 놓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보통 강한 분이 아니다. 그런 점들을 강수옥 생산자가 물려받았을까? 결코 구부러질 수 없는, 그냥 부러져 버리는 그의 대쪽 같은 성격.

새어머니는 늘 아프시더니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이 60도 되지 않은 연세였다. 돌아가실 때는 그의 집에서 며느리의 수발을 받으며 편히 가셨다. 임종 전에, 새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했던지, “나는 교회 다녔으니 너희들에게 제사 받아먹지는 않겠다. 내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부모님 제사를 정성스레 챙겨 모신다. “그럴 수는 없지. 도리가 그게 아닌데. 아래로 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모셔요.” 그이 아내의 말이다. 아버지는 13년 전에 돌아가시고, 동생은 둘이 있어 서로 친형제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즐겁게 사이좋게 서로 오가며 지내고 있다.

## 독서를 통해 인생을 설계하게 된 청소년기

그는 청소년기 대부분의 시간을 충남 강경, 부여, 공주 등지에 있는 책방을 찾아다니며 책을 읽으며 보냈다. 어린 시절의 웬지 모를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을까? 학구열과 탐구욕, 그리고 사회의식도 대단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그 시기에 책방에서 3년을 일하며 더욱 열심히 읽었다. 무엇이든 쭉쭉 흡수하는 청소년기, 그가 책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 소년 강수옥이 자신의 세계 지평을 확장하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단초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글쎄, 참. 나는. 애당초부터 농사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술적인 거. 내 자랑하는 거 아니지만 말이에요. 예술적인 그런 부분. 천부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친구와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친구는 현재 화가로 성공했죠. 나는 우리 집에서 그림 그린다고 할머니가 환쟁이 된다고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 못했는데, 지금도 아쉽고 후회 되고 그래요. 경제적 여력은 있는 집이었는데 말이야. 그때는 그림 그린다면 다 반대하긴 했지만 서두…….” 아쉬움이 묻어나는 음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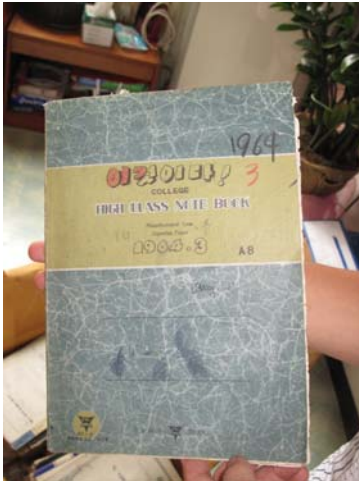


▲ 서울에서 자취하던 당시 생산자가 찬장에 놓인 물건을 묘사한 그림

그렇게 말한 후에, 그는 방에 들어가 오래된 종이상자를 갖고 와 우리 일행에게 보여준다. 그 상자 안에는 오랫동안 써온 일기장과 청소년 시절의 습작들이 있었다. 만화를 그리기도 했고 꽃과 사물을 스케치한 실력은 실제로 상당했다. 그가 그의 꿈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딸기 생산자 강수옥 대신, 화가인 그를 만났을 지도 모르겠다.

정규 고등학교 대신에 책방 고등학교를 다닌 그는,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어, 해병대에 입대한다. 군대에 있을 때, 『전우』 신문의 수기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된다. 다섯 명 수상자 가운데 일등 한 그. “내가 문학적 소양이 있단 말이에요. 국무총리상, 육군참모총장상, 해군참모총장상, 공군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뽑는데 내가 일등 했습니다. 일등.” 어떤 주제의 문화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의 얼굴이 빛난다. 또 그는 19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일기를 쓴다. 일기를 써 본 사람은 안다. 그야말로 작심 삼일. 그렇게 오랜 기간 꾸준히 쓴 일기. 1985년부터 한결같이 해온 딸기농사.

인터뷰를 계속하며, 그에게서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은 운동가, 혹은 혁명가로서의 기질이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구와 보다 나은 생활을 누군가에게 펼쳐주고 싶어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혁명가의 정신이니겠는가.



▲ 19살부터 35살까지 써온 일기

새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그는 일찍부터 인생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책을 많이 읽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런 성향이 군대에 가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독서를 하게 되며 더욱 다져지게 되었다.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정이지만. 초등학교 때 만난 세 친구가 있습니다. 평생 친구지요. 지금까지도 참 친하게 지내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세 친구 중의 한 친구가 대우자동차에 근무했다. 항상 노동자편에서 일을 하던 친구는 1966년경 미국에서 일어난 블랙파워 운동에 심취하였고 또 다른 친구는 경찰관이 되었다.

## 새로운 세상을 꿈 꾸는 청년기

해병대를 제대하고 얼마 뒤, 초등학교 때 만나 평생 친구가 된 전주병씨와 함께 강원도 사북의 탄광지역 인근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다. 이곳은 그가 해병대 근무 시절 만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곳이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꿈꾸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들어온 것이다. “내 어릴 때의 꿈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마을을 개척하는데 있었어요. 돈 벌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소득과 분배가 평등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친구들과 함께 꿈꾸었거든요. 이걸 목표로 삼고 그곳에 갔지요.” 그런데, 이곳은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이었다.

“그런 돌밭은 아직까지도 보지를 못했어요. 돌을 골라 낼 수도 없는 자갈밭인거예요. 그냥 돌과 돌 사이에 씨앗을 심는 거죠. 그걸 어떻게 골라 내요. 그 돌을 절대 골라 낼 수 없어 그냥 심어요. 거기서는 모두 그렇게 해요.” 그곳에서 집도 짓고, 양봉도 하고, 고랭지 배추를 심어 수익도 좀 올렸지만, 땅은 여전히 척박했다.

비록 돌투성이 밭이었지만 새로운 이상적인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서 스무살 중반의 팔팔한 기력을 다 쏟아 부었다. 그러나 차츰 그곳 풍토와 음식, 그리고 일부 주민의 성향이 자신과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됐고, 2년 후에는 서울로 돌아온다. “그곳에서의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어요. 실천을 못했어요. 내가 그곳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에는 내가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 내 힘과 친구들의 힘만 믿고 할 수는 없는 여건이었지요. 그리고 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탄광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술도 많이 먹고 생활도 좀 그래요.” 웬지 적응하기 어려웠던 땅. 그러나 이상향에 대한 기억과 꿈을 간직하게 해준 사북 탄광지역. 그 시절을 회상한다. “가난한 생활을 참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부자 옆에서 살려면 힘이 막 들어요. 진이 빠지고 그러죠. 그런데 같이 가난하면 뭐 그냥 견딜만하단 말입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 결혼한 아내와 함께 돌아간다. 그곳으로.

### **그렇게 힘들었던 땅에 왜 다시 가셨어요?**

“약속했거든요. 다시 오겠다고 하고 떠났거든. 약속을 지켜야죠. 내가 원래 조금 혁명가 기질이 있는 거 같아요. 유토피아? 새로운 터전을 꾸려보고 싶은 것이 나의 원래 꿈이었으니까.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거기서 닭도 키우고 양봉도 하고, 별 것을 다 해도 돈이 만 들어지지 않더군요. 그래 내가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다시 온다 하고 떠났습니다. 만약 내가 아직까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유토피아에서 현실로

사북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그는 청계천의 피복 공장에 취직한다. 요꼬(스웨터)공장.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이 막 수출을 시작하던 그 때.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 해병대를 제대한 그는 요꼬 공장의 수위로 일한다. “그런데 조그만 공장에 울타리를 치고 아이들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환경이 나빴어요.”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때 싹텄다. 그는 ‘그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미국의 할렘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기초가 되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곳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국익을 창출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저항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작았던 노동자로서 자신을 회상했다. 요꼬 공장 이후에도 면목동의 가발공장에 취직해 다녔지만, 시대적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머리와 가슴이 따로 있는 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한다.

요꼬공장과 가발공장을 거친 후, 그는 수원에 있는 한 농장의 관리인으로 취직한다. 그리고 1975년, 조계숙 여성생산자와 결혼한 그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북으로 돌아간다. 부인과 1년을 그곳에서 생활하며 양봉도 배추도 심으며 삶의 터전을 닦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곳을 나와 경기도 평택의 한 농장에서 수목관리인으로 일하게 된다. 그 시기, 친구 박건우씨를 통해 대구 한살림의 천규석 선생님을 소개 받고 서로 친구가 된다. 그는 천규석 선생의 권유로 창녕으로 이사해 다시 양봉을 하게 된다.

공동체의 이상을 접고 도시로 돌아와 지내던 당시, 그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미국 신문기자 출신인 애드가 스노(Edgar Snow)가 쓴 『중국의 붉은 별』이었다. 이 책은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그는

인민을 위한 모택동의 노력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다루려는 생각을 배웠다고 한다. 또 『사상계』와 같은 당시의 진보적인 잡지에도 심취하여 늘 갈망하던 철학과 사상에 대한 욕구와 호기심을 풀 수 있었다.

그는 일반 책 뿐 아니라, 종교에도 심취하였는데, 불교 관련 서적을 읽거나 유명한 스님들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보기도 하고, 성경도 더러 읽어보았다. 현재 종교는 천주교인데 마흔 넘어서 천규석 선생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부부 모두 영세를 받아 강요한, 조안나라는 이름도 얻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자연스레 가톨릭 농민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나이 칠십에 막 접어든 요즘은 “불교에도 뭔가 있는 것 같다”며 종교를 통한 성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믿음으로 이뤄가는 결혼 생활

현재도 늦은 나이로 할 수 있는 35살. 그런 나이에 결혼하며, 그는 정말 자신에게 딱 맞는 하늘이 준비해 두었던 배필을 만난다. 서로가 힘든 상황이었기에,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았던 처자. 청년 강수옥은 충청도 홍성 출신의 조계숙과 결혼한다. 수목관리원 시절, 수목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그녀의 사촌 형부였다. 맞선을 보고, 서로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채, 2년을 기다려 한 결혼. 왜 그렇게 늦었을까? “나는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지 하지요. 경제적 여력이 너무 없어서……. 기다리라고도 안했고. 기다린다고도 안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한 거죠. 결혼을 말입니다.”

돈이 없어 선뜻 결혼하자고 말하지 못한 그. 그러려니 하면서 진득하게 기다린 그의 아내. 무척이나 무던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에피소드가 있다. 결혼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없던 그는 용기 있게 장인한테 말했다. ‘딸 시집 자금을 현금으로 주시면 좋겠다’ 고. ‘땅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물론 장인어른의 호통을 맞고 물러나야 했지만.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뜻심 있고 용기 있는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일화이다.

“나는 젊은 날,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인생과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꿈이 많았죠. 그렇지만, 결혼은 서로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젊은 처녀는 그래도 생각했다. 부여 시내에 정미소도 갖고 있는 집안이니 설마 그렇게 없을까 하고. “시댁에서 뭘 좀 마련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전세거리고 뒤편. 아무 것도 말이야. 그래 우리 친정에서 좀 마련해 준 것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의 아내는 홍성의 조씨, 집성촌 사람이었다. 한국의 경제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던 그 시대. 어느 집안의, 어느 딸들이나 모두 수출 공장에 취직하여 서울로, 도시로 집을 떠나던 그 시기에. 집안에서 살림을 돕고 조용히 지냈다. “저 사람은 시골의 대가족 사이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을 불평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순박하고 멋을 내고 그런 거 몰라요. 그래 저 사람이 밥을 참 잘해요. 그리고 난, 내 아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의 아내에 대한 말이다.

한살림에서 그녀의 음식 솜씨는 이름나 있다. 지금처럼 체계적인 조합원 방문 프로그램이 자리 잡기 전, 한살림 행사 때마다 동료 여성생산자들과

함께 열심히 음식 준비하던 모습. 아마 많은 조합원과 실무자들이 그 모습과 그녀의 손맛을 기억할 것이다.

### **남편은 어떤 분이세요?**

“저이는 나를 속인 적이 없고, 자기 양심에 꺼리는 일도 없으니 자신이 100점짜리 남편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많은 것을 나와 의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야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나와 의논을 하니깐요. 남편이 혼자 결정한 것이 있어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부부는 돈을 쓰든, 무얼 하든, 항상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껏 살았지요. 주변에서 우리 부부 보고 모두 잉꼬부부라 하는데 그저 즐겁지요.”

강수옥 생산자도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말이야. 이 정도 되면 돈 좀 쓰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도 사고. 이제 우리 부부 이려고 살 때도 됐단 말입니다.” “생산자도 차를 갖고 좀 더 자신을 위해 살기도 된다.” 고 말하던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멋있었던 것을 필자는 생생히 기억한다. 당당하게 자신의 차로 운전하며 부부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사는 멋쟁이 생산자. 그들 부부

### **딸기와의 만남**

젊은 부부는 강원도에서 꿀통을 가지고 경기도 평택으로 나와 직장을

다니고, 다시 친구를 따라 창녕으로 이사한다. 당시, 대구의 천규석 선생은 젊은 나이에 처를 잃었는데 그가 가끔 강수옥 생산자의 집에 올 때면 조계숙 여성생산자가 김치를 담가서 보내주고 그랬단다. “그 친구, 계속 혼자 살았잖아. 그거 힘든 일이야. 참말로.” 그는 진심으로 천 선생을 칭찬한다.

“창녕에서 논도 두 마지기 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사고, 천규석 선생이 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 있겠습디다. 벌도 자꾸 움작거리고. 땅을 또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 사이에 두 배가 되었어요. 아하, 돈은 이렇게 버는구나 생각했죠. 그렇지만 갖고 있던 땅이 적었어요. 뭐 돈이나 많이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나는 천규석이가 땅을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팔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곳은 꿀을 생산해내는 밀원이 부족했다. 양봉 경험자인 그는 요즘, 한반도에서 꿀 생산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꿀을 만들어 내는 밀원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라한다. 숲이 울창해져 꿀을 내는 작은 꽃과 나무들이 그늘에서 잘 번식하지 못하는 것이 이유라 한다.

평택으로 잠시 옮겼다가 부모님의 정미소 일을 거들어 드리려고 부여로 이사했다. “여기서 한 2년만 있다가 공주 쪽으로 다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게 생겨서 그냥 눌러 앉은 거야. 그러다 보니 이곳에 머물러졌어요.” 머물러졌다. 이들은 대화 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참 마음 따뜻한 표현을 한다. 머물러졌다!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일. 이제 그만 떠돌고 머무르자. 벌통만 백 여 개 갖고 들어와 조금씩 살림을 불러, 쌀 열 가마 주고 집을 샀다. 외아들 원울이를 낳고. 밭을 사고, 고향 근처 부여 땅에서 일구어 평생 사랑이 된 딸기 밭.

양봉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그의 아내가 이웃에 딸기 농사짓는

집의 요청을 받아 딸기 수확과 포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녀가 포장한 딸기는 잘 팔렸다. “딸기를 골라서 상자에 담는데, 사람들은 쪼르르 예쁘게 담는 것을 잘 못해. 그래 내가 그 집 가서 예쁘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집 옆에다 하우스 한 동만 해봐라’ 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딸기 농사를 위해 태어난 사람’ 이라 했다.

우연찮게 시작한 딸기농사는 이상하게 잘 됐다. 젊은 부부가 부어로 와서 이리저리 다니며 고생하는 모습을 본 이웃 사람이 가르쳐 준 딸기농사. 그런데 첫 해부터 그들보다 더 잘 지었다. 그렇지만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그들이기에 한 해 농사를 지으면 다른 곳으로 철제 시설을 가지고 옮겨가야 했다. “이상했어요. 배우며 지은 농산데, 언제나 우리 것이 수확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 그런지. 아무도 해를 이어 지으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농사가 끝나면 시설을 떼어 가지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사람들은 모르게 본인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들도 그랬던 거다. 자신에게 배워서 짓는 농사가 자기들 것보다 수확이 못해야 하는데, 더 잘 되니 뭐라 말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되었겠지. 권했던 이웃보다 훨씬 더 잘 된 딸기농사. 왜 그런지 우리는 안다. 농작물은, 어쩌면 키워주는 사람의 애정 어린 손길로 자란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것을 실천하며 지은 농사. 귀하게 정성을 들여서. 딸기는 그걸 알았다. 1년을 농사짓고, 다시 다른 땅을 찾아 시설을 옮겨가며. “그때는 땅을 빌려 준다 그런 생각도 없던 시기였어요. 벼 심었다가 추수 후에, 노는 논이니까. 그냥 비료 몇 부대 팔아주고 지었어요. 그런데 논에다 심으니까, 다음 해에는 논농사를 위해 논에 물을 가두니까 딸기가 막 물러지고 썩더라고. 그렇게 물을 가득 가두지 않아도 되

는데 말이예요” 빌린 논이니 뭐라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딸기농사 못 짓겠다고 푸념했던 날들. 그런 일을 겪으며 그들 부부는 자신들의 땅을 살 것을 결심한다.

### **땅을 마련한 기분은 어떠셨어요?**

“농부가 땅을 갖게 된 기쁨. 그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좋고 즐거우면 그냥 막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마, 서로 마음이 벅차 함께 손을 마주 잡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꿈같다고. 뭐 그런 말을 했던 거 같아요. 물론 자식 낳을 때도 기뻐지만, 막 소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좋으면 막 그러고 싶잖아요. 농사짓는 사람에게 있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신의 땅 없이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귀농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워요. 농부가 땅을 갖는다는 건 정말 기쁜 겁니다. 땅이 있어야 진정한 농사꾼이 될 수 있거든요. 돈으로 치면 별거 아닌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땅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일하는 일생 동안만 빌려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내가 만들지 않은 땅. 인생 사는 동안 빌려 쓰고 잘 정리해 두고 가는 것이 땅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토지 공개념을 아주 좋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땅에 대한 생각부터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는 자신의 땅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땅 천 평을 먼저 마련하고 또 마련했어요. 그렇게 해서 딸기농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후작으로 논농사를 했습니다. 위에 있는 밭엔 배나무도 심고, 양봉도 치면서. 논농사를 하니 그전에는 사먹던 쌀을 내 노동으로 수확하여 먹는 즐거움도 컸어요.”

계속하던 양봉은 차츰 그만두게 되었는데, 현재는 수분작업을 위해 벌을 사다가 딸기밭에 넣어준다. 직업으로 삼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했던 양봉을 하며 보니 벌의 세계도 신비했다. “벌은 여왕벌, 일벌, 수벌로 집단을 이루는데, 아주 질서가 있고 계획적이에요. 벌의 세계가, 개미의 세계도 그렇지만 오묘해요. 벌의 세계는, 개미도 그렇고, 철저하게 전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조직체예요. 그래서 벌은 하나의 군으로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의 꿈이 이런 동물들의 세계와 통하는지도 모르겠다.

### **딸기농사는 처음부터 무농약으로 하셨나요?**

“그럼요. 그땐 농약 안 쳐도 지금처럼 병충해가 많지 않았으니까. 상식이었지, 농약 안 치는게. ‘생명농업에 대한 생각을 천규석 선생으로부터 들었냐?’ 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농약을 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식이 무너지는 경우는 결국 돈 때문이지요. 사복에서 배추농사 할 때부터 나는 농약 안 치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다만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약을 치는 것뿐입니다.”

### **딸기농사 기술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농업기술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주로 책을 통해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나 그런 것을 통해 특별히 배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르쳐 주는 곳이 많아요. 책으로 배우기도 하고. 우리나라 농부들이 딸기를 과학적으로 아주 잘 키워요. 딸기 실험장도 있고, 딸기

잘 한다는 일본 기술을 능가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산청 지역 쪽에서 아주 잘 해요. 수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현재 우리는 하우스 2천 평에 품종으로는 ‘도찌오도메’와 ‘금향’을 재배합니다.”

“최고의 딸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유지하려면, 선택과 절제를 잘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힘들게 키운 것이니 당연히 아깝죠. 그런데 조금 모자라다 싶은 딸기를 과감히 출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이 딸기를 먹을 때, 어떤 딸기가 가장 늦게까지 남는지 유심히 살펴봐요. 그러면 항상 가장 작은 것이 남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딸기는 맛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맛있는 딸기를 남기는 사람을 보면서, 딸기를 남기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요. 팔리지 않는 딸기는 계속 그렇게 맛이 없는 거지요. 출하하려다 보면 이것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내보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모른 척하고 출하하면, 꼭 그런 딸기가 물러지고 변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용기 있게 좋지 않은 것을 빼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자신이 농사지었으니 그저 아까워 선별하기 힘들지요. 우리는 딸기 선별할 때 작은 것은 과감하게 넣지 않습니다.”

“딸기도 잎이 무성하고 좋아야 맛있는 딸기가 됩니다. 잎은 없고 딸기만 바글바글하면 맛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아까워서 넣는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남는 것은 그런 딸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딸기 상태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으로 정해 판매하고 있는 다른 생협도 있잖아요. 어찌면 한살림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함께 4백 평 정도의 딸기농사를 지으면 년 간 3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딸기하우스 한 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5백만 원쯤 합니다. 그 정도

수입이면 살만해요.”

한살림에서 최고의 유기농 딸기를 생산하는 그도 농약을 친 일이 있다, 한살림 초기, 딸기의 첫 출하 일자는 4월 초순이어서 딸기 공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런데 재배 기술이 향상되고 출하 기간이 길어지며 딸기의 병충해 문제도 심각해졌다. 소비자, 실무자와 함께 의논하여, 한 번의 딸기 수확이 끝나고 다음 딸기가 열리기 전에 훈증 방식으로 약을 한 번 친다는 것을 결정했다. 물론 그때 수확된 딸기는 모두 잼 가공용으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런 모든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린다는 것도 함께 결정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잼이 공급되자 너무나 투명한 그 사실에 조합원들은 감동했다. 그 일은 한살림이 생산방식, 생산량, 생산가격 등을 소비자와 생산자, 실무자가 다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한살림과의 인연

1985년도에 처음 딸기농사를 시작한 강수옥 생산자는, 천규석 선생과의 인연으로 1990년에 설립된 대구 한살림으로 딸기를 출하했다. 그 당시엔 물류라든가 포장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매번 차를 빌려 5kg, 8kg 사과상자나 느타리버섯 상자를 구해 딸기를 넣어 보냈다. 그러면 그것을 조합원들 몇 명에서 나눠 먹었다. 그렇지 않아도 살이 여린 딸기는 그렇게 포장되어 가서 더 쉽게 물이 되었다. 며칠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공급 되던 그 당시의 딸기.

한살림 수도권 지역으로 공급한 것은 92년도쯤. 현재 한살림연합의 이상

국 대표와 조완형 전무의 방문을 받은 후다. “이상국 대표는 천주교 베른 성지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 얘기가 돼 가지고 딸기 출하를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대구 한살림과 시중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내가 딸기를 출하하기 전에는 윤여신이라는 생산자가 냈었죠.” 이분은 딸기 팔아 아파트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쳤단다. 그러나 이제나 그때나 아파트란 비싼 것. 쉽게 살 수 없는 금액이었다.

당시는 한살림의 조합원이 늘어나던 시기. 부여 지역의 딸기 생산자들과 회의를 거쳐 그는 무농약 딸기 가격을 시중가의 30%만 더 받는 조건으로 출하한다. 그 가격은 당시 한살림 물품 가격과 비교하여도 저렴한 가격이었다는 회상이다. 아마 그도 함께 딸기농사를 하지 않았으면 욕먹었을 가격. 그래도 함께 농사짓는 사람이 앞장서니까 다른 생산자들도 모두 마음 합쳐 합의해 주었다. 어떻게 그리 쉽게 합의가 되었을까? “어, 모두 순진하고. 또 한살림이 좋은 사업이란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중간 마진이 없다는 거, 술수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지금처럼 차등 딸기 가격이 아닌, 출하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던 딸기 가격. 농민에게 결코 이롭다 할 수 없는 그 가격으로, 당시의 한살림 조합원들은 무농약 딸기를 공급받았다.

그의 인생에서 딸기는 특별하다. 것처럼 오래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한살림이 수확한 작물을 선과하지 않는 정책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생명이 깃든 소중한 먹거리를 차마 고를 수 없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이러한 방식이 생산자에게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판로를 생산자에게 제공한 한살림이 있어서다. 그는 “내가 참 한살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요. 언젠가 농사에서 손을 놓을 때, 한살림을 위해 무엇을 남기고 그만둘 것인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한살림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내 일생에서 한살림은 참 좋은 거였어요.” 한살림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한다.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함께 한 한살림운동. “나는 그래요. 딸기농사 지어 돈 벌었다 자랑하지 말자고 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농사를 짓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내 딸기를 먹었던 조합원들에게 딸기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남기고 그만두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저 사람, 끝까지 돈 벌려고 딸기농사 지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맛이 좋고 살이 단단한 ‘도찌오도메’와 ‘금향’ 종류로 더 많이 심을 예정이다. 일본에서 많이 짓고 있는 이 품종은 종자 로열티도 없어 더욱 좋다.

전과 달리, 생산지를 방문하는 조합원들의 성향이 변했다. 참가비를 냈으니 딸기를 마음껏 먹고 따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 정성을 다해 키운 딸기를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어느 젊은 엄마들의 경우 “이거 여기서 먹지 않으면 못 먹는 거야. 그러니 빨리 많이 먹어” 하며 아이들에게 강제로 먹이는 경우도 있다. 딸기밭에서의 예절도 전과 같지 않아, 딸기를 따서 여기저기 버리는 경우도 많고. “정말, 생산자들이 모두 말 한다고. 딸기밭에 한 번 조합원이 들어가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의 체험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서로 얘기합니다.” 그런 의견을 모았다니,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는가.

## 공동체에 대하여

청마공동체의 시작은 정부의 중소농 고품질 지원사업에서 시작된다. 그 당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중소농들을 선정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 법인을 설립해야 했고, 그렇게 법인을 설립하여 받은 지원 금액은 법인 당 2억 5천만 원 정도. 그때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전체 금액의 70%는 융자금, 30%는 자기 부담으로 설립한 영농법인은 먼저 8평짜리 냉동 창고를 지었다. 다음에는 딸기 연동하우스를 지었다. 스웨덴으로부터 도입한 연동하우스. 그러나 연료비가 문제였다. 평 당 7만원의 보조비로는 보일러 시설을 설치하고 연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사람들 간에 이견이 생기고 서로 힘들어졌다.

사람들 생각에는 하우스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연동하우스가 더욱 효율적인 것 같아도 딸기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온도조절이 잘 되지 않는 연동하우스 사업은 실패했다고 할 정도가 되었다. 당시, 정부는 연동하우스는 지원해도 작은 하우스 시설은 지원하지 않았다. 무슨 유행처럼 퍼졌던 연동하우스에 대한 씩씩한 기억이다. 누구나 잘 해보려는 부푼 마음을 갖고 시작했던 공동체는 그렇게 스스로 정리되는 순서를 밟게 된다.

그런데다 2003년 1월 굉장한 폭설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전국의 농가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와 한살림에서 걷은 성금이 공동체에 분배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어느 사업이든지 돈이 관계되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 인생의 지표 같은 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막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 그게 할 일이 아니더라고. 나는 정부나 기관에서 주는 보

조금 같은 거는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 좋아하질 않지요.” 현재도 공동체에서 지원금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어느 규모 이상 커지는 것을 걱정한다.

가톨릭농민회 활동 당시에는 농민 주권과 쌀값 인상, 수세 인하 등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시위에도 참여했다. 시위 중에 비라도 오면 쌀부대 등을 뒤집어쓰고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했다. 그러는 중에 농협 직선제도 이뤄졌다. 70-80년대는 대학생들이 농촌봉사 활동을 하려해도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주는 지역이 거의 없었다. 그가 부여군 농민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부여 지역은 그들 학생들이 농촌 활동을 펼칠 장소도 제공하고, 농민회에서 대학교 축제 행사 등에도 참가하며 사회참여 의식을 키우기도 했다.

2006년도 결성된 소부리 영농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200여 명에 달한다. 상당히 규모가 큰 조합이다. 딸기에서 수박과 멜론으로 작물의 영역도 넓혔다. 부여 지역의 땅은 충적토이며 황토 땅이라 이곳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의 맛이 아주 좋다. 그는 이제 조합원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멀리서 지켜보는 위치에 있다. 조언을 구하면 때에 따라 가장 현명한 조언을 해주고 싶고, 해 줄 수 있는 위치의 조합원. 인생의 모든 일에서 한 발, 한 발 떨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다.

## 되돌아본다. 나의 인생

외아들 원울이를 키울 때도 그랬다. 사랑으로 키웠다. 물질적으로가 아닌. 부모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너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니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너의 부모는 이렇게 노력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활이기를 바랐다. 스스로를 키우고 스스로 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아들이 학교 때 담배를 피울까봐 염려하고 편지를 써서 설득한 아버지. 그 부모를 따라 반듯한 청년으로 자란 원울이는 어느새 가장이 되고 이제 아이 아버지가 된다.

“내가 원울이에게 그래요. 너한테 주는 것은 지금 없다. 기대하지 말라고. 네가 힘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도 못살 때 이걸 주지만, 바라지 말라고 하지요.”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쓰고, 내가 갈 때 돌려주고 가는 그 무엇일 뿐이다. 땅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흙도 만들고 땅도 다듬고 그래야 자신의 것이므로 땅에 대한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 혁명가적인 삶을 꿈꿨던 그는 인생에서 전환의 시기마다 망설임이 없었다.

### **어떻게 자신의 결정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나요?**

“용기예요. 확신이 있단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과 용기가 있단 얘기지요.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사람도 한 번 믿으면 그냥 믿고 잘 해줍니다. 그러다

가 실망하면 그냥 뒤돌아 버리고 말지요. 내가 살아오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타협을 모르는 나의 우직함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똑심도 있고, 한 번 무엇을 정하면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용기가 있어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힘도 있고요. 그러나 부정의 것과 불의를 보면 절대 흥정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는 고집이 상당하지요.”

아무래도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는 법이니 ‘그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평가가 궁금하다’고 한다. 그래서 어서 빨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 딸기농사의 비법을 알려주고 좋은 농부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싶다. 좋은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생산자의 옆에 두고 싶다고. 그런데 한 사람 발견했다는 말씀이다. 2년째 농사 지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므로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도 같은 마음으로 땅에 대한 시선을 새로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떠날 때는 확 떠난다고. 나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없이 나의 노력으로 이만큼 살았기에 후회는 없어요.” 올해 칠순이 된 그는 “나는 알아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더 가깝다는 것을. 그래서 차차 농사짓는 것을 줄여가려 하고 있어요.” 한살림 안에서 딸기농사를 하면서 자신이 얻은 것이 훨씬 많다. 한살림에서 뛰어 놀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그렇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 한살림은 서로 믿음이 있어 좋다.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을 함께 하는 한살림 운동이 이처럼 좋은 것이니, 여러 사람에게 좀 더 많이 따라오도록 행동으로 좀 더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는 그들 부부.

“한살림 운동을 한 것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경제적 이익을 많이 받

은 것을 나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는 한살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고 있지요. 그리고 나를 자신의 뜻을 따라 인생을 개척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자신이 평생 농사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가졌기에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


인생에서 어느 때 가장 힘들었는지 궁금했다. “대전 한살림에 관계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 일에 휘말릴 때는 딱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요새 연예인들이 힘들다면서 자살하잖아요. 그 당시의 내가 그런 사람들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몇 해 전, 대전 한살림 총회에서 일어난 일. 다시 회고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여러 사람이 관계된 그 일의 복잡함.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게 되는 우리들 인생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

### **앞으로의 한살림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한살림 농부는 생각하는 농민이 되어야 해요. 우리 인생과 우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농군이 되어야 합니다. 한살림 운동을 하면서 나쁜 소리 좋은 소리도 했지만, 한살림을 만나서 나는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만나고 헤어지며 소식 없어지는 것이 참 아쉬워요. 어느 사이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시다. 그러면서, 한살림의 조직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조직이 늘어나며 자칫하다 한살림 처음의 정신과 마음이 흐려지는 일이 생길까 그러지요. 한살림이 커지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왜 커져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 제시가 없으면 힘들죠. 초기 한살림이 내건 가치인 전국토를

유기농화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좀 힘들지 않아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의 딸기를 받아먹고는 맛있고 안전한 유기농 딸기에 대해 반갑고 고맙다는 전화와 편지를 보내주는 소비자 조합원이 있다. 그런 일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보람 있게 한다며 본래 농민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진정한 한살림 생산자, 강수옥, 조계숙 부부. “그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어. 아주 형편없었지. 그렇게 평가받지 않고 말입니다. 함께 살아서 괜찮았던 사람으로, 마음 편하면서 같이 일하기에 성실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함께 일하기에 마음이 맞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같이 하며 딸기농사의 모든 것을 전해 주고 싶다는 가슴 따뜻하고 소박한 부부. 평생 딸기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며 행복하게, 흐뭇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웃는다. 두 손 잡고 고생하며 자신들의 생에서 무언가를 이룩한 부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쁨과 보람, 용서, 화합의 결정체인 미소를. 

## 강수욱 생산자 약력

- 1942년 부여 석성리 3남 중 첫째로 출생
- 1945년 어머니 돌아가심
- 1948년 아버지 재혼
- 1957년 부여중학교 졸업
- 1960년 일기 쓰기 시작 (~35살까지)
- 1963년 해병대 생활(~65), 군 생활 수기로 국방부장관상 수상
- 1965년 사북으로 귀농하여 양봉과 배추 농사
- 1967년 서울로 돌아옴. 청계천 공장 관리인으로 일 함
- 1970년대 수원에서 묘목 관리인으로 일 함
- 1975년 조계숙씨와 결혼
- 1975년 강원도 사북으로 다시 귀농하여 양봉과 배추 농사
- 1978년 평택 묘목 관리인으로 일 함
- 1979년 창녕으로 이사 가서 천규석씨와 가깝게 지내며 양봉
- 1980년 평택으로 복귀
- 1982년 부여로 귀농 / 계모 돌아가심
- 1984년 가톨릭농민회 활동 시작함
- 1985년 딸기 농사 시작
- 1989년 땅 1000평을 구매하여 본격적인 딸기 농사를 시작함. 부여 지역 가톨릭농민회 창립
- 1990년 대구 한살림으로 딸기 출하
- 1991년 한살림으로 딸기 출하
- 1995년 청마 공동체 결성
- 1998년 아버지 돌아가심
- 2003~4년 폭설피해 지원 자금을 둘러싼 공동체 내부 갈등
- 2006년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결성에 참가
- 2012년 현업에 종사 중.



## 갈퀴과 EM농법의 선구자

이영민 생산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현대 생활에서 어느 한 가지 일에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무엇인가, 마음속에 단단한 것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사람. 우리에게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정신으로 보여주는 이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감동한다. 그렇게 시대의 초상이 되는 분. 어려운 유기농 농사에 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은 그 단단함으로 스스로 인생의 보람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되고 생활의 선구자가 된다.

결코 지치지 않는 마음의 정열로, 자신이 선택한 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그들. 그들에게겐 열정이 있다. 힘이 있고 삶의 뿌리가 튼튼하다. 땅 속 깊이 뿌리박아, 험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상록수 그 자체다. 편하게만 살지 않은 인생에는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찬란한 가치가

있다. 세상이나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 더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힘이 있다. 이것이 내 인생이라는 굳은 믿음이 그들 마음 한 가운데에 심어져 있다. 그런 사람들의 이런 힘이 오늘의 한살림을 키우고 자라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한살림이 이처럼 튼튼하게 버티고 설 수 있도록 기초를 다듬은 초석이 되었다.

1970년대 “대학나무”라고 불리며,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큰돈을 벌어들이는 나무였던 감귤.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자식을 대학 보낸다는 나무. 그때, 육지 사람들은 감귤나무를 갖고 있는 제주도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너무나 쉽지 않은가? 앞마당에 귤나무 한 그루 심으면 아이가 대학을 간다! 어찌면 꿈같은 이야기. 일본을 거쳐 제주도에서 올라 온 감귤은 그 당시, 아무 집에서나 먹을 수 없는 호사스런 과일이었다. 누구네 집에 귤 한 상자 선물 들어왔다 하면, 친구들이 서로 말했다. “우와. 너는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재배했는지는 알고 싶지 않았던 웬지 이국적인 맛을 가진 감귤. 겨울 날 귤을 까서 입에 넣으면 시원듯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입에 고였다. 신기하고 맛있었다. 그런 맛을 가진 감귤은 당연히 농약 없이 재배하는 줄 알았는데……. 70년대부터 제주도에서 재배된 감귤은 병충해를 피하고 좀 더 많은 수확을 올리기 위해 주로 관행농법으로 재배됐다. 80년대에 들어서야 농약의 피해를 벗어나기 위한 무농약, 유기농 농사가 시작되었다.

이제, 전국 어디에나 유기농 농사를 열심히 짓는 한살림 농부가 있다. 그런 이들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정열을 가지고 있는 분 중의 한 사람으로, 제주도 유기농 감귤농부 이영민 생산자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유용미생물인 EM 활용의 선구자이며, 보급자이고, EM 농법을 전국에 널리

전파하고 싶어 열심히 생활한다. 그에게는 순수하면서도 이상한 귀여움이 있다. 순전한 고집불통으로 진정한 농사꾼이 된 그 사람, 이영민을 만나본다.

## 가족 이야기

제주도에서는 섬 본래 태생인 아닌 사람을 ‘입도인(入島人)’이라 부른다. 말 그대로 섬으로 넘어 온 사람. 고부 이(李) 씨(氏)인 그는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유기농 감귤 농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17대째 살고 있는 유배인 후손으로 선조 할아버지는 조광조와 함께 개혁을 꿈꾸던 분이셨다. 처음에는 제주도 다른 곳에서 살았으나, 도순으로 옮겨와 12대째 살고 있다.

그는 현재 EM환경센터가 있는 도순초등학교 근처에서 태어났다. 아버님은 그가 열세 살 때 돌아가셨으나, 어머님은 92살까지 수를 누리시고 가셨다. 교육열과 학구열이 높은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시절, 옷도 팔아가며 그와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는 자신의 성격 중,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묻고 배우고 연구하는 기질을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말한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분도 어머님이다. 그가 교사를 할 때나, EM환경센터에서 수강생을 가르칠 때, 어머니는 자식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틈틈이 공부하여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자랑하셨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를 도와 농사짓다가, 그 시대에 딱 한 번 제정된 4년제 중등교육과정을 시행하는 중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했다. 그 교육제도는 졸업하면 사범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하여 초등교사 자격

증을 주는 제도였다. 또 교육 뿐 아니라 가난한 농촌 현실에도 관심이 깊었던 그는 초등학교 교사 생활과 농촌지도소 공무원 생활을 병행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일본식 교육을 받았던 그는 그때의 일본어 실력으로, 교사 시절 일본어로 된 교육학을 공부하여, 학생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EM에 관한 일본어 책도 다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계속 어머니와 농사를 지었다. “어머니는 그런 제가 안타까워 늘, ‘너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로 일생을 바칠 사람이다’ 하시며 아쉬워 하셨어요. 그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니 그리 기뻐하시더라고. 그러다 가족이 합의를 해서 퇴직을 했는데도 내가 학교 교사직을 그만둘 때 굉장히 아쉬워 하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의 회고이다.

“그토록 자식이 교사인 걸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92살, 제가 EM환경센터 공사를 시작하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입으로 가르치든,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치든 가르치는 것은 다 똑같은데 말이에요. 교사 그만둔 것을 그렇게 아쉬워 하셨어요. 꼭 월급 받고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도 괜찮은데 말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것이 다 팔자에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그의 나이 26세이던 1959년. 강매화 여성생산자와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그 당시 결혼은 모두 중매였다. 도순 마을이 약간 시골이라면 서귀포는 도시였다. 서귀포에 살던 강 씨 처자는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정혼을 했다. 남편감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니 고생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시집을 왔단다. 그 때는 모든 집이 농사를 짓던 시절이긴 하였다. 친정에서도 농사를 지었지만, 그래도 집안 어른들이 마을 이장을 하시기도 했다. 평범하지만 무난한 집안이었고, 시집도 그런 집안이라 생각하고 결

혼했다.

그는 없는 살림에 동생들 공부시키려 교편을 잡았고, 군대도 늦은 나이에 갔다. 그리고 결혼식 3일 전에야 휴가를 받아 나와 결혼했다. 그와 다섯 살 차이나는 그의 아내는 참 곱다.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시원하고 대범한 면도 있어, 서로 살기에 편했다. 유머도 있고 대범한 면이 있는 아내에 비해 그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답게 화도 잘 내고 고집도 세다. 어쩌다 부부간에 의견 조정이 안 되면 말문을 닫아버리고 누워버리는 사람은 언제나 남편이다. 보통은 아내들이 그렇게 하는데 말이다.

### **남편은 어떤 분이세요?**

“내 남편은 정말로 없는 것에서 지금 있는 것을 창조해 낸 사람이에요. 내 남편은 참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 참아요. 그리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평생 일하고 돈을 차근차근 모아 밭 사서 늘리고, 또 이제는 EM환경센터에 전력을 다 해 몰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촌운동과 4H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고, 우직하게 유기농 농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이는 어떤 때는 아이 같아요. 보통 부부가 싸우면 여자가 빠치는데, 저이는 꼭 여자 같아요. 나는 아무리 화나도, 고만 아침부터 일을 하고, 밭에 나가던가 목은 빨래를 하던가 하면서 잊고 마는데 말이에요. 저이는 화 나면 아무 것도 안 해요. 고만 드러누워 버리고 말지. 그러면 내가 속으로 생각하지. ‘세상 사는 것 아무 것도 아닌데……. 난 늙기 싫어서 안 드러 늙나 뭐.’ 화 나도 조용없는 거야. 실제로. 다 그렇고 그런 거죠. 싸워도 그렇지 뭐. 바람 불다가 날도 좋고 하다가. 그래, 난 화

난 사람 보면 이래 말해요. ‘애, 오늘 바람 불다가 내일 좋은 날 온다’ 생각하고 화내지 말라고 말해 주지요.” 아무래도 아내가 그 보다 한 수 위인 것 같다.

### **남편이 유기농 감귤 농사를 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 농사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EM으로 다 발효시켜서 하나 까 그런대로 괜찮아요. 나는 유기농 농사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양약 있고 한약 있다 하고, 유기농은 한약으로 농사짓는 거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한약은 다 나무뿌리 등으로 만든 거처럼, 우리는 한약처럼 만들어 그걸 뿌리니까 몸에는 절대 해가 없지요. EM발효액 먹으면서 농사지어도 되고. 그런데 관행 농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양약 하는 사람은 마스크 써야 하고. 눈도 나빠지고 그래요. 한약과 양약으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한약으로 사람 먹듯이, 한약으로 나무뿌리나 이파리나 그런 것처럼……. 우리 나무한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유기농 농사를 설명할 수 있을까? 역시 오래 경험이 축적된 분의 얘기는 다르다.

초등학교 교사 시절, 그에게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한 번은 고향보다 먼 지역으로 전근을 가라는 명이 왔다. 그는 그 발령에 대해 “내가 우리 마을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쳐야 하는데, 왜 멀리 가라고 하는 거요” 하며 가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우직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에게 교육청은 할 수 없이, 그의 모교인 도순초등학교로 발령 내었다. 자신이 생각한 일과 하고 싶은 일은 기어이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정열을 쏟았던 그의 정성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잘 도와주고

있다.

“내가 말이에요. 제주도 어디를 가든 내 제자가 있어요. 그래, 교육청이든, 도지사 사무실에 가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아이들이 다 해결해 주려 노력하고 도와줍니다. 아주 뿌듯하고 보람 있지요.” 말하는 그의 얼굴에 감도는 빛나는 자부심과 자랑. 평생 교육을 바탕으로 사람을 길러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만족감 가득한 웃음이다.

그는 보리와 고구마로 처음 농사를 지으며, 닭을 기르고 토마토도 재배해보았다. 그러다 감귤 농사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도 이제까지 사니까 나쁜 세상도 살아보고 좋은 세상도 살고 얼마나 좋으냐고.” 그의 아내의 말이다. “육지생활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물으니, “아니요. 여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는 대답이 돌아온다. 살아오는 동안 육지를 그리워하지 않은 채, 제주도에서만 일생을 살아온 그들 부부는 아들 둘, 딸 둘을 두었다. 큰 아들은 공무원, 작은 아들은 EM환경센터에서 연구 개발을 맡고 있다. 두 딸은 현직 교사로 결혼하여 모두 가족과 같이 제주도에 살고 있다.

그의 아내는 “우리 그이가 작년에 건강이 많이 나빠셨지만, 그때 주위 분들이 어찌나 정성을 다 해 살피주셨는지 몰라요. 고마워요. 그래 우리가 오래 살아, 많이 갚아야 할텐데……. 우리가 살면서 환경에 빚진 거 많아요. 그리고 나는 평생 거짓말도 모르고 꾸며 말하지도 못해요” 라고 말한다.

## 감귤 이야기

감귤농사에서 가장 즐거운 때는 감귤 수확 철이다. 이때 여성생산자들의 능력이 발휘된다. 원래 제주도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 특히 감귤 수확 철에는 더욱 그렇다. 대부분 숙련된 솜씨를 갖고 있는 생산자들은 하루에 200관쯤 탄다. 도시에서 감귤 수확 철에 제주도로 건너오는 일꾼들은 하루에 60~70관쯤 탄다고 한다. 그리고 감귤 밭에 거름이 되라고 나뭇잎을 뿌리는 일들도 여성생산자들의 몫이다.

### 감귤 농사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집안 형제들과 의논했어요.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다른 형제들은 공부를 계속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지요. 우리 동생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 졸업하기로 했고, 그 동생이 대학교수가 되었는데, 그만 자기 일에 비판되는 것이 있어 자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거지. 뭐, 엉망이 되었어요. 원래 아무 것도 없는 집안이었지만……. 그래 내가 그만 남의 농장에 일하러 갔어요. 그야말로 머슴살이지. 머슴살이 하면서 농촌지도일과 마을 이장일은 계속 보면서 말이에요. 그때 일본에서 감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농장은 일본 사람 것인데, 주인은 일본에 있으니까 내가 그 농장에서 7년을 일하며 농장을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그때 감귤 농사를 경험했습니다. 1971년부터 77년까지. 74년, 75년도쯤에, 새마을 운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였거든요. 그 당시 돈을 꺾서 처음 땅을 사고 계속 조금씩 늘려가며 지금의 감귤농장(민초원)까지 온 거에

요. 처음에는 관행농사를 지었으나 1980년대부터 유기농 농사로 전환했어요. 그 후, 90년대 들어서 유용미생물인 EM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터 지금까지 EM농법과 유기농법으로 감귤 재배를 하고 있어요.”



▲ 생산자가 본인의 감귤밭 입구에 세워놓은 입석

### **유기농 감귤 농사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은 원래 참 가난해 남의 밭을 소작 받아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어요. 뭐,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랬지요. 그때는 보리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러다 70년대에 제주도에 감귤이 들어와 남의 농장에서 감귤 농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종의 머슴살이를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주도에 흔한 유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집마다 울타리로 유자나무를 심었으니까. 생 울타리였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유자나무는 농약을 주지 않아도 잘 되더라 말이에요. 아하!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그 때에. 아주 단순하게 굴나무가 유자나무와 사촌지간이니 농약을 하지 말고 지어보자 생각했어요. 아마 유자와 굴이 같은 방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다 짐작한 거죠. 그때, 유자나무를 보고 친환경농업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의 유기농 감귤농사는.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유기농으로 감귤을 재배하고 그 유기농 감귤을 한살림 조합원인 우리가 늘 먹게 되어서 행복한 일이다.

###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1980년대까지 모두 관행농사를 지었어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아주 맹독성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약은 65년 이후에 퍼졌어요. DDT도 그렇고. 일본점령시대에는 송진합제와 유황합제가 있었고. 그 이상의 병충해 예방제는 없어요. 그거 만드는 기술자가 최고 기술자였어요. 파라치온이라고. 논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거의 모두 농약 중독에 쓰러졌거든요. 그 당시 정부에서는 농약을 뿌리라고 독려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지역은 병충해 발생 지역이라고 빨간 깃발을 발에 꼽아 놓고 하니, 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잡초 뽑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니까 농약은 나쁠 거 같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부터 4년 간 농약 사용하지 않았더니 괜찮더라 말입니다.

꿀이 아주 깨끗해요. 그러다가, 4년째 돌아오니깐, 꿀에 벌레와 병이 막 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한살림에서 월남 꿀 얘기가 나온 거죠. 감귤 껍질에 까맣게 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채 출하 되었으니……. 한살림 조합원의 아이가 ‘우리가 먹는 꿀은 월남 꿀입니다.’ 했다는 얘기가 나와 내가 막 웃던 기억이 나요. 그 시절, 그런 꿀을 아무 말 없이 먹어 주었던 조합원들 생각하면 지금도 무척 고맙고 힘이 나지요.”

“그런 저런 일들이 고마워, 내가 꼭, 정말 좋은, 당도 높은 감귤을 생산해 조합원들께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해서 브릭스(brix) 14인 감귤을 출하했는데 이번엔 조합원의 반응이 무덤덤한 거예요. 아하! 실망했다 하기보다, 이제는 이런 당도의 감귤이 흔해졌단 생각에 좀 쓸쓸했지요. 조합원들이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기대했던 마음이 주춤하게 된 겁니다. 현재 기술로 당도를 더 높일 수는 있지만, 평균 브릭스 12~14 정도를 유지하며 출하하고 있어요.”

“유자나무에는 농약을 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감귤나무는 그렇지 않아서 95년까지 감귤 농사를 하며 돈은 별로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 친구들이며 후배들이 ‘그냥 관행 농사지었으면 큰 돈 벌었을 텐데…….’ 이러지마는. 그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농사는 아마 수억, 수십억 들여 공부하며 하는 농사일 겁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는 거지요. 계속 관행농업 했으면, 오늘 날, 내가 이런 얘길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일에 당당한 사람, 자신의 삶에 당당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꿈을 지지해준 한살림에 고마워하는 사람. 그야말로 당당한 한살림 농사꾼이다.

## 친환경농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960년대, 4H 운동을 하며 농촌지도소에서 농업 지도를 할 당시. 나는 책 읽어 가며 농약사용법, 비료사용법 등을 가르쳤어요.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다 농약 중독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유자나무를 살피본 후로, 친환경 농사로 돌아섰잖아요. 제가 농촌지도소 활동으로 60년대 농촌 운동을 하며 농림부장관상을 두 번 받고, 국무총리상 표창도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냥 친환경 농사를 하려고 결심하고, 75년도에 굴 받을 구입했습니다. 80년대부터 친환경 농사를 시작했지요. 92년부터는 EM농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순수하게 친환경 농사를 하는 나라는 스위스뿐이에요. 쿠바의 농업은 도시 농업을 하는 거지요. 스위스는 나라밖에서 어떤 농약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한 나라라 생각합니다.<sup>1)</sup> 그런데 세계적으로 과학농업은, 농업의 흐름은 농약 사용하고 비료 쓰는 거거든요. 스위스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그러기 위해 농업 정책이 친환경농업이 된 건데 아직은 아쉬운 면이 많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각 지자체나 단체에서 친환경급식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아주 잘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친환경급식 재료가 어찌면 전부 농약 덩어리일지도 몰라요. 저농약도 결국 농약을 친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서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

1) 2011년 현재, 스위스는 전체 농업 용지의 10% 정도가 유기농지이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 숫자는 늘어나는데,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많지 않아요. 제가 80년대에 친환경 농사를 하면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 정농회를 가보고, 또 다시 한살림에도 가봤습니다만, 어디에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초기부터 가르치는 것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거의 없는듯 합니다.”

“우리 환경센터에 EM농법을 배우러 온 학생들 앞에서 나는 직접 호스를 연결해 발효 중인 EM용액을 마셔요. 왜?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을 작물에게 줄 수 없다 생각하고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직접 실천해 보이며 합니다. 재료를 배합하는 일도 손으로 직접 하고, 발효액을 검사하고 땅에 뿌리는 일까지 모든 것을 제 스스로 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감귤 밭은 아주 깨끗해요. 밭에 파이텍을 깔아 인위적으로 물을 차단해 당도를 높이거든요. 언제나 밭에 잡초는 있지만, 우린 그냥 예초만 해 줄 뿐입니다. ‘너, 임마. 자라지마, 너 여기 위까지 올라오지 말라니까’ 하고 풀에게 말하곤 하지요. 그냥 베어주기만 하거나 밟아 버리거나 합니다. EM을 밭에 뿌리기 때문에 작물과 함께 풀도 잘 자라지만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면 괜찮아요. 어느 작물이든지 풀이 작물 크기만큼 자라지 않게 하면 관리가 잘 됩니다.”

“유기농산물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데, 농부가 자신을 갖고 정확하게 농사지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선 농부를 확실하게 교육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 있게 받아들입니다. 교육하는 사람이 우물쭈물하며 가르치면 교육받는 사람은 확신이 없어 제대로 농사짓지 못해요. 현대는 생산자도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들 찾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찾아내야 해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래, 내가 일본에 가서 책을 사와 공부하고 EM 연구를 하고 보급하고 교육하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진정한 스승도 없고. 자신이 아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감귤만 해도 방치해 놓은 것을 따가지고 가서 ‘농약 하지 않아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다’ 하면 참 뼈아픈 일이잖아요. 유기농산물은 더러워야 한다. 못나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어찌면 농부가 게을러 그래요. 밭을 잘 관리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는 노력해 좋은 것을 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농부가 같은 값을 받는다면 문제인 거죠. 그런 것을 우리들끼리는 ‘무임승차’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웃고 마는 겁니다.”

## EM을 만나다

“유용미생물인 EM을 알았을 때, 그것은 제 인생에서 아주 대단한 변혁이었어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1991년도에 EM이라는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한 일본 오키나와의 히가 테루오 교수가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EM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안내 되었어요. 그 설명회에 12명이 참가했는데, 제주도에서 세 명이 갔었습니다. 그렇게 히가 교수와 제주도 사람 세 명 등 네 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서로 질문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 ‘정말, 당신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 하고 물으니, 히가 교수가 ‘다 맞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EM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책을 사와 공부했어요. 그런 목적으로 1991년도에만 일본을 네 번 갔다 왔습니다. EM 효소와 책만 사가지고 바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EM에 관한 책을 보니까 환히 보이더라구요. 내가 일본어 실력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예요. 그때까지 일제 강점기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 책은 볼 수 있어요. 지금 내 방에 있는 EM 관련 책들 모두 일본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실력으로 모든 것을 독학을 한 셈입니다.”

### **EM환경센터는 아드님과 협업체제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일본으로부터 구입해서 사용하니 뭐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EM을 공부하다 보니 화학부터 물리학, 생화학까지 공부를 해야 했어요. 모르니까, 자꾸 아들한테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농사짓는 아버지가 왜 이런 것을 자꾸 물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에게 대답하기를, ‘농업에는 이런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했지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럼 ‘내가 아버지를 돕겠다. 아버지 따라 농사를 짓겠다.’ 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일본 가서 EM공부를 해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일본의 EM개발자 히가 교수의 제자가 되어 석사까지 공부합니다. “

“그런데 아들이 일본서 공부하고 생활하다 보니, 내 손자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래 내가, ‘내 손자들은 일본 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 했어요. 아들이 제주도로 돌아와, 나와 함께 EM연구 하고

농사도 돕고 환경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EM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환경센터에서 만든 EM을 사용하고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센터 운영은 아들과 함께 하는데, 이걸 협업체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 EM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1리터에 만 원도 받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4천원 받습니다. 우리는 EM으로 어떤 욕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토종 EM을 생산, 유통 하시나요?**

“토종이든 아니든 거의 상관없어요. 미생물의 기능이라는 것이 방선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네 개가 전부입니다. 이거만 알면 농사꾼들은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가령, 광합성 세균을 땅과 작물에 주면 당도가 올라갑니다. 환경센터에 그런 농법을 교육하고 품질인증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밀감을 출하할 수 있도록 유통회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 환경센터 지도로 생산된 밀감은 100% 모두 상자에 EM스티커를 붙여 출하합니다. EM농산물만을 취급해주는 유통회사인 셈이지요.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이 더욱 가능해질거라 확신합니다.”

그는 일본의 다카마쓰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EM농업 네트워크에 대해 진열적으로 얘기한다. 그곳에는 EM농산물 직판장이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멍가게에 EM농산물, EM내의 EM섭유 등 EM으로 개발한 물품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한다. EM플라자, EM농장, EM관광지 등의 계획들을 무한

한 가능성을 가지고 전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EM물류센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다. 물품 상자에 생산자 이름만 명시하면 된다. 생산자는 모든 것을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자신의 농산물과 물품을 출하하고, 소비자는 그것을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논리로만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한다.

### ***EM 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EM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산자가 유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산을 하겠어요. 유통 없이는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 향상이 안 되지요. 어찌 생각하면, 유통이란 것은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하려면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좋은 걸 유통할수록 유통회사도 돈 벌고, 생산자도 소득이 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맛있는 것을 사먹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우리는 기술향상을 위해 유통 방법 혹은 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아마도 친환경농산물 유통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살림에서도 한살림만의 독보적인 농산물을 만들어야 해요, 한살림의 대표 브랜드로 내세워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유기농 농법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한살림 물품들이 품질 면에서, 다른 곳의 작물과 경쟁되지 않도록 품질이 향상돼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유통업과의 경쟁에서 힘들어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농산물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생산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교육도 하고. 좀 더 차원 높은 교육이 필요해요. EM으로 하는 농사가 한 5년 정도는 잘 되지만, 그 후로는 어렵다 이런 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어요. EM 농사는 항상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유기농업을 하면, 더구나 우리처럼 유용한 미생물을 가지고 농사지으면 몸에 피로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착한 일하는 미생물이 우리 몸속으로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해서 소비되는 에너지 보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러니 일을 열심히 하고도 거뜬한 거지요. 더구나 EM은 과다 사용이란 것이 없어 농사짓는데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농부들은 EM 다 알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전화가 옵니다. EM 얘기 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나는 전부 가르쳐 줍니다. 오리 농가한테도, 한우 키우는 사람한테도. 그래서 지난 번 구제역 파동 때도 효과 본 거 아닙니까. EM과 같은 생균제를 먹이고 키운 축산물은 병도 잘 걸리지 않고 그 고기의 질이 특수합니다. 맛있어요. 닭도 오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 일자가 한 5일쯤 빨라집니다.”

유기농 감귤 생산자이자 유익한 미생물 발효액인 EM효소와 EM농법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이제 전국으로 그 농법을 전해주고자 열심히 활동하는 그. 그는 EM농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어느 곳이라도 간다. 실제로 서울과 제주에서 1달에 각 한 차례씩. 3일 일정의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EM환경센터를 통해 교육 받은 사람은 약 3만 명 가량 된다. 생활환경교사는 60여 명 배출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EM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

국 최초로 EM사업을 담당하는 EM계가 제주도청 환경자산보전과 아래 신설되어, 공공 기관을 통해 생활 속에서 EM 이용법 등을 잘 보급하고 실천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 또한 EM 효소를 이용해 만든 흙 공을 하천에 투입하는 생활하수정화운동<sup>2)</sup>과 바다 살리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EBS의 “물은 살아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실생활에서 정화된 하수가 바다로 내려가면 바다가 살아나고 바다의 해초 더욱 잘 자라고, 그 결과 바다가 살아난다. 피해가 많다고 알려진 가두리 양식장에도 EM을 사용한다. 이곳에서 키운 수산물은 맛도 더욱 좋다.

유기농 농사는 EM과 바닷물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효과가 높아진다. 병충해가 심해 약을 쳐야 한다면, 바닷물 원액을 물뿌리개를 이용해 반나절 정도 뿌리면 병충해가 없다.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바닷물은 비만 한번 오면 그 성분이 거의 다 씻겨 내려가므로 염분으로부터 토양이 오염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바닷물에는 염분보다는 미네랄 성분이 더 많아서 작물에 큰 도움이 된다.

EM은 어디에나, 어떤 것에나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그의 가족이나, EM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양치질하거나 세수와 목욕할 때, 화분에 물을 줄 때, 숙성시킨 EM을 사용한다. EM과 친숙해지면 그냥 먹기도 한다. 처음에는 이상해도 먹기 시작하면 괜찮다. 먹을 때는 물 타서 먹기도 하지만 그냥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건강을 유지한다.

EM환경센터에서는 EM 농법을 지도하는 시작부터 책임을 지고 최고의

---

2) 최근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들이 황토에 유용 미생물(EM)을 배양시켜 만든 ‘흙공’을 하천에 던지는 행사를 종종 개최하고 있다. 악취제거와 수질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환경정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 6. 4일자)

산물을 내어 수익을 올릴 때까지 가르쳐준다. 그의 말에 따르면, EM 농법으로 작물을 생산자의 의도대로 키울 수 있다 한다. 쌀, 마늘, 감자, 채소, 닭, 한우 축산물, 장어 등과 나무와 화초까지. 특히 천연비누 만들 때는 꼭 넣어야 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천연비누라 할 수 있다.

그의 EM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으면, EM은 거의 만병통치약에 인류 최대의 발견인 것 같이 들리기도 한다. 여자들의 고운 얼굴 피부도, 밭의 무좀도 모두 EM이면 된다고 그는 열심히 설명한다. 현재도 그와 가족, 환경센터 사람들, 그리고 EM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EM 생활이용법을 꾸준히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

## 한살림과 나

비교적 초창기부터 활동한 이영민 생산자는 어떻게 한살림과 만났을까? 어떤 인연이 그를 한살림으로 이끌었는지 들어보았다.

“1989년에 한살림 생산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때 한살림을 만나서 내 인생이 아주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됐지요. 그래서 내가 한살림에 대해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살림 초기, 월남 굴을 가지고……. 그게 내 인생의 또 다른 출발이 되었어요. 그때 유기농 농사에 대한 의지가 꺾였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용기를 얻었어요.”

“80년대에 유기농 농사를 하면서 판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주는데도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농회에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준다 해서 갔어요. 거기서 한살림을 소개 받았어요. 故 박재일 회장님

하고 이상국 대표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기농 농사 현장은 참 힘들었어요. 작물에 벌레는 먹고 병은 들어가고... 그래도 어떻게 생활비라도 조금 얻으려고 한살림에 출하를 하는데..... 한살림에서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굴도 한살림에서 받아주었다 하는 마음. 새까만 밀감도 소비해 주었다. 그런 일이 나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 한살림 형제들에게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어 공급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3년 전에 당도 14 브릭스인 것을 만들어 보냈는데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이런 것은 보편화가 됐구나. 했어요. 글썄, 감회가 새롭다 할까? 농사 기술이 정말 발달되었구나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저의 철학입니다. 한살림에서도 그런 철학을 더욱 확고히 하고 그런 정신으로 농사짓는 사람을 격려하고 더 많이 배출하도록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농산물을 먹는 것은 항산화물질을 먹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채소는 더욱 그렇지요 그러면 항산화물질이 많게끔 할 수 있는 농법이 뭐냐, 이걸 찾아서 한살림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농업을 한다는 것의 목적이, 우리의 생산자들의 목표가 항산화물질을 많이 포함한 작물을 생산해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런 방향의 농사법들을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해요. 그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EM농법으로 하면 굴도 더 맛있게 생산할 수 있고, 감자도 갈변되지 않는 것을 재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재배하면 ‘우리 한살림에서 출하하는 감자는 갈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자에 써 붙여 출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합원이 그냥 믿게 되는 거지요. 품질이 좋은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작물은 품질로 조합원에게 평가 받아야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조합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지요. 지금 내가 한살림에 바라는 것은 한살림 기준의 바른 농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농사지은 거는 100% 우리가 소비를 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자를 보호해준다는 의식이 생산자 마음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EM 유용미생물로 농사를 지으면 흙 속의 미생물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 땅에서 키운 농산물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농산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의 작물을 잘 키워 한살림의 대표 작물, 한살림의 브랜드 물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살림 청년생산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는 젊은 한살림 생산들에게 친환경 농업만이 진짜 농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농사에 관한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농촌으로 들어와 열심히 유기농 농사를 하다보면 보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농부의 시대가 올 겁니다. 농업은 완전히 1인 기업이잖아요. 정년도 없고, 누가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하다보면 분명히 그 대가가 반드시 돌아와요. 다만, 농촌으로 오려면 부부가 함께 오세요. 농촌으로 가족이 다 같이 가세요. 아내가 반대 하면 농사 못 지어요. 농촌으로 오기 전에 부부 합의해서 오세요, 그럼 반드시 성공하게 돼있어요.”

“아내 구할 수 없대구요? 그럼 수원에 있는 농수산대학 앞에 가서 서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면 부부간에 협업이 잘 됩니다. 농사가 더 잘 돼요. 그러면 애들도 얼마나 잘 자랄 거예요. 이러니까 농업이 정말로 천직일 수 있는데 여자가 왜 싫어해요. 아이들 잘 크고 부부 사이 좋아지고, 그러니 부부가 함께 농사지으세요.”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서 2시간 일 하고, 환경센터 일 보고, 다시 오후 3시쯤 되면 밭에 나가 일해요.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대로. 누가 참견하지도 않고. 유기농업을 하면 피로하지 않아요. 나는 내 힘의 한계 안에서 나의 운동의 결과가 보이도록 살았다는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 없어지는 에너지보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 이렇게 내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 ***앞으로 한살림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한살림이 있었기에 내 유기농이라는 연구 과제가 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한살림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한살림이 더욱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에 정성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모두 한 단계씩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살림이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사는 크게 성공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한살림의 독보적인 농산물 브랜드를 계속 열심히 개발하고 생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농법을 빨리 정착시켜야 해요.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살림 물품이 다른

곳의 물품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유통업에서 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한살림연합의 이상국 대표와도 자주 합니다.”

“한살림은 매장을 크게 내기 보다는 앞서 말한, 다카마쓰 시의 경우처럼, 샵 인 샵(Shop in shop-가게 안에 일부 공간을 얻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의 친환경 브랜드 매장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경비 많이 들이지 않고 조합원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말입니다.”

한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별레를 가지고 공부할 일이 생기면 “이 선생님네 가면 별레 있으니 잡아와라” 하기도 했다. 꾸준히 하다보면 사람들 의식이 변하고, 그때부터는 유기농 농사가 제대로 잘 이뤄질거라 말하며,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한다.

경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현재는 더욱 더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크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농사를 권하고 싶단다. 글썄? 어찌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쉬운 조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젊은 부부가 마음 합쳐 내려와 열심히 일하면 농사는 반드시 보람을 안겨 준다하니 젊은이들은 한 번 용기를 내어도 좋겠다.

그리고 그는, 그 동안 농사 경험과 EM에 대한 모든 것을 한살림을 통해 요청해 오는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 나눠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살림 안에도 생산지도 팀을 두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유기농 농사를 꾸준히 해 온 그는 친구가 별로 없다. 80년도까지 농촌은

동을 하며 많은 직책을 가지고 서로 끌어주었던 친구들은 그가 유기농 농사를 한다니까, 그러면 망한다며 떠나갔다. 그때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을 요즘 다시 만나면, “형님. 참 대단하십니다.” 한단다. “고집으로 한 일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람 있습니다.” 그의 말이다.

1935년 생. 우리 나이로 벌써 그는 일흔 여섯이다. 물론 한살림 농부들은 그 연세가 되어도 모두 현역 농부이다. 그는 더욱 더 그렇다. “농부는 정년 없어요. 위, 아래도 없어요. 맘 편해요. 1인 기업이지. 직장으로 생각해도 농사가 최고입니다.” 본인의 농장책임자로 일하며 마을 이장, 그리고 농업인으로 살아 온 자신의 생이, 어느 누구의 삶보다 더 보람 있는 생활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농업 교육이 곧 인성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농업 철학은 공생, 즉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라 말한다. 풀포기와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은 서로 도우며 사는데, 사람들은 왜 서로 돕지 못하는 걸까. 사람은 왜 너는 너고 나는 나여야 하는가?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인성 교육이 빠진 대한민국의 농업 교육과 일반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 EM환경센터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의도적으로 인성 교육을 한다. 앞으로 농업인은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하는 농업 체계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친환경유기농업이 더욱 발전하고 농민이 신뢰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조합원은 안심하며 좋고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으세요?

“내가 진정 이루고 싶은 것은 원래 있던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청정 제주도를 일궈나가는 일입니다. 제주도가 진짜 환경적으로 완성된 지자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려면 한살림에서도 도와줘야 해요. 생활개선은 유용미생물인 EM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 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환경오염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친환경 농업은 운동 차원에서 번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살림 운동도 그렇게 해야지요. 처음엔 한살림도 생활운동으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야 운동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친환경 농법도 교육을 함께하며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EM을 더욱 열심히 알려야 합니다. 농업인은 자신에 대해 원망이고 불만이 없어요. 내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다 했다. 내 자신 게으른 것은 없다. ‘농사는 하늘이 내게 시킨 일 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최선을 다해 작물을 키우고, 하늘에 부끄러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농부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유기농법으로, EM을 매체로 하여 우리나라 전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 등도 다닌 그의 말이기에 더욱 신뢰가 되는 말이기도 하다.

가족에게는, 특히 그의 아내에게는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를 사다주며 이렇게 말했다 한다. “우리는 목숨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소. 우리가 저 세상 갈 때는 모두 빈손으로 갈 뿐이요. 우리가 지금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이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사는 게 무소유 아니겠소.” 그래, 이제 부부는 서로 얼굴 보며 웃는다. 그와 아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산소를 만들면 자손들에

게 짐이 되지 않도록 수목장을 하자고 약속했다.

그러는 남편에게 그의 아내는 “할아버지 고집이 세니까. 그런데 그 고집이 오늘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자기 고집대로 하니깐. 나는 막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친환경 농사라 해도, 나는 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제주도 여자들 일 많이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사하니 아기들한테 좋잖아요. 요즘 정말 잘못되는 아가들도 많고 그런데. 할아버지 덕에 좋은 세상 살고, 나는 만족해요.” 라고 말한다.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믿고 따른다. 이상하게, 아니 정말 평범하고 진실하게 한살림 농부 부부들은 서로를 마음으로 부터 아낀다. 진심으로. 아마도 땅의 기운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사실, 4, 5십 년을 함께 살아 온 세월. 그 무게와 두께가 얼마나 크고 깊을 것인가. 그 시간들을 서로 다독이며 그들은 오늘까지 왔다.

우리가 둘러 본 이영민 생산자의 감귤 농장과 EM환경센터는 참으로 정갈했다. 깨끗이 걸레질 끝내 놓은, 그리고 햇살 가득한 내 집안처럼. 마치 나의 안식처같이.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이 넘쳤다. 누가 와서 보고, 묻더라도 땃땃이 보이고 말할 수 있는, 그들 한살림 농부 부부의 생활이 그 정갈함 안에 투명하게 비춰졌다. 농장의 감귤 나무들과 EM환경센터 위에 펼쳐진 푸르른 제주 하늘과 구름처럼 평화롭게 말이다. 누구나 그들을 만나면 그런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한살림 농부 부부가 사이좋게 산다.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마을에서. 📍

**EM은 무엇일까?** EM은 Effective Micro organisms(유용 미생물)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일본의 히가 테루오 교수에 의해 1979년 발견되었다. EM에는 일반적으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이 들어 있어 악취 제거, 수질 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방지, 남은 음식물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항산화 작용 혹은 생리 활성물질을 생성하며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유용 미생물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것으로, 항산화 작용 또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함으로써 부패를 억제하여 자연을 소생의 방향으로 이끌어나간다. EM을 개발한 히가 테루오 교수는 EM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며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영민 생산자 약력

- 1934년 4남매 중 둘째로 출생(주민등록에는 35년 생).
- 1945년 아버지 돌아가심.
- 1959년 결혼.
- 1965년 농림부장관 표창 수상.
- 1967년 제주도지사 표창 수상.
- 1968년 교사직을 그만두고 농업 시작.
- 1971년 일본 교포의 농장 관리인(~77년)
- 1974년 마을 이장 (~75년)
- 1975년 굴 밭 1만 평 구입.
- 1979년 일본 오키나와 대학의 히가 테루오 교수가 유용미생물(EM) 발견.
- 1980년 무농약 무화학 농사 시작.
- 1987년 국무총리 표창 수상.
- 1989년 한살림 가입.
- 1991년 히가 테루오 교수 초청강연회 참석.
- 1992년 본인 굴 밭에 EM농법 시작.
- 1999년 서귀포 시민문화상 수상.
- 2001년 (사) 유용미생물(EM) 환경 센터 설립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고 면허를 취득.
- 2004년 현 제주 EM환경교육관 건립
- 2005년 제 1회 친환경농업기술개발 부분 수상.
- 2011년 현재 EM환경 센터 이사장.

## 마을이 중요하다

정광영 생산자



비에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와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욕심도 없고/ 절대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루 현미 네 흡과/  
 된장과 나물을 조금/ 모든 일에/  
 제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잘 보고 들어 깨달아/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 속 그늘에/ 조그만 초가지붕 오두막에 살며/  
 북쪽에 병 든 아이 있으면/ 찾아가 위로해 주고/  
 서쪽에 고달픈 어머니 있으면/ 가서 그이 벅단을 대신 쳐주고/  
 남쪽에 죽어 날 사람 있으면/ 가서 무서워 말라 위로하고/  
 북쪽에 싸움과 소송이 있으면/ 쓸데없는 짓이니 그만두라 하고/  
 가뭄이 들면 눈물 흘리고/ 추운 겨울엔 허둥대며 걷고/  
 누구한테나 바보로 불리고/ 칭찬도 듣지 말고/  
 괴롭도 끼치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 미야자와 겐지 “비에 지지 않고”-

**새해가 되어** 수첩을 바꾸게 되면, 결코, 흥내라도 낼 수는 없으나, 이  
 런 마음과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고 싶어 읊겨 적는 시(詩)다. 그러면서, 저  
 리 세상을 사는 사람을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야 했다.

그런데, 가끔 한살림 안에서 얘기를 듣다보면, 저 사람은 혹시? 하는 생  
 산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 생각되는 당진의 농부,  
 한살림에 쌀, 잡곡, 감자, 양파, 생강 등을 공급하는 정광영 생산자. 그는  
 ‘정직해야겠다.’ ‘조금은 겸손하게 살고, 주변을 살펴봐도 여유 있게  
 살아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으니, 풍요롭게 살지 않겠다’ 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 그대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는 평생을 지켜 간직한 종교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배워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지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의 집 앞 밭으로 돌아 나가는 발두둑에 있었다. 어느 해인가 생산지 방문 중에 밤새 조청을 고우고, 새벽 산책길에 마주한 흐린 안개 사이의 성모상. 아름다웠다. ‘아, 여기 사람들은 저처럼 아름답겠구나.’ 하며 잔잔한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자신과 주변의 삶과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생과 저 생을 무리 없이 살고 축복 속에 마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과 생각을, 이른 아침, 밭으로 일 나가며 하는 사람과 생활. 종교적이라는 것은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가 됐든 종교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무어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존중한다. 종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길잡이이며 이정표라 생각한다.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 모두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안내해 준다. 그 지침들을 따라 그는 노력하며 살았다. 애쓴다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말씀 따라 사는 생활.

그는 인생을 정직하게 살고, 언제나 겸손한 행동을 하며, 생활의 모든 면에서 결코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웬지 그래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는 상대의 마음이 아플까봐, 들으면 가슴 서늘해지는 험한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 혼자 사는 힘든 어머니가 있으면, 찾아가 웬만한 것들은 대신 해준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경우가 생기면, 자신이 먼저 묵묵히 한다.

그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여유가 있거나 경제력이 많으면, 웬지 근면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고, 정직하지도 않은 것 같으며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 결코 넘치지 않는 그의 잣대로 봤을 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좋지 않다는 그의 생각이 놀랍다. 농업을 삶의 모든 노동의 근본으로 알고, 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산자. 정광영이다.

“생명살림”을 기치로 내세운 한살림에서 그는 땅을 잘 가꾸고 싶어 한다. 모든 작물을 정성들여 보살피고, 돈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농작물 팔아 돈으로만 환산되는 그 무엇을 경계한다. 그저, 먹고 살면 되었지 않나? 그러면서 농업을 소중히 하는 농부이기를 소망한다. 큰 욕심 없이 사는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 농사는 자식 돌보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고 있다. 때때로 정성을 다 해도 힘들긴 하지만, 논이나 밭에 나가면 정말 흐뭇한 웃음이 나오는 농부. 늘,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하고, 생산한 물품을 소비해주는 조합원과, 그들을 연결해 주는 실무자, 관계된 사람들과 주어진 일에 고마워한다. 공간에 가득 쌓아 놓고 사는 일상보다, 일 년 농사지어, 한 해 한 해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일에 보람을 갖는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추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그저 부모님과 형님의 말에 잘 순종했던 거 같습니다. 형제나 친구들과 싸운 기억도 별로 없어요. 군대 갔다 온 후에 형님이 좀 제게 심하다 싶게 하셔서, 크게 대든 것 외에는 대들거나 싸운 일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늘 조용하다, 성실하다는 평가를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매일 2.5km를, 중학교 때는 12km를 걸어 다녔

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고 하는 생활을 비가 오거나 눈 보라 치거나 빠지지 않고 다녔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 봐야죠. 하루에 5시간쯤 걸었는데, 부모님이 공부 하라 하신 기억은 없어요.”

“아버님은 40년 전에,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좀 엄격하셨다는 기억이 있고. 어머니도 조금 냉정하다할까? 부드러운 성격은 아니셨던 거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 또한 별로 없고. 제 위로 누님과 형님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밥알 흘리면 야단 맞았던 기억도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지거나, 종교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맞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궁핍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밥 굶는 사람도 더러 있었는데 우리 집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공부는 늘 중간쯤 했는데, 부모님은 학교 공부보다 종교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혼내셨어요. 자식에 대한 정을 잘 나타내지 않으시는 성격들이시라, 별 말씀 없으셨고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그랬습니다만. 부모님께 말씀으로 교육 받은 것보다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배운 것이 더 많아요. 지금도 저는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행동과 말씀이 제일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교육과 함께 부모로부터 배운 것은 죽을 때까지 간다고 봐야죠.”

“아버님이 농사꾼이면서도 항상 깔끔하게 자신과 집안을 갈무리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런 점을 배운 거 같습니다. 늘 집안과 밖을 깨끗이 하고, 일하고 들어오면 옷을 잘 털고, 내 것은 내가 빨고 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뭐 깔끔 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 생각해 그렇게 하지요. 아버님이 항상 그러셨으니까요. 지금도 아버지가 만드신

마당에 깔 명석, 5~6개를 저희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남들은 깔끔하게 마당을 시멘트로 포장하러지만, 명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얼 말리거나 할 때 깨끗하고, 아버님 것이니까 잘 쓰고 보관하려 하죠. 흙마당과 명석에 작물을 말리면 시멘트 포장에 말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굵은 양파나 감자는 더 그렇습니다. 시멘트나 비닐 위에 널면 작물이 그냥 익어버려요.”

### **청년기에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형님이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으니, 집에서 저 보고는 도시에 나가 살라 하셨어요. 인천에 사촌 형님이 있어, 중간에 말을 놓아 주었죠. 인천의 운수회사에 다니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당진과 인천 간에 여객선이 하루에 한 번씩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병색이 짙어지시며, 한 달쯤 아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농사를 다 소를 이용해 하거나, 손으로 밭을 매고 했었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 놀러 왔게 되었지요.”

“처음엔 1년만 집안 농사일 돕다가 인천으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1년으로 끝나나요. 계속 생기니까, 형님은 그래도 가라 하는데, 어머니가 형님 도와주라 하셔서 그냥 있게 되었습니다. 1년, 2년하다 중매로 결혼하게 되어 그냥 놀러 살게 된 셈이죠. 도시에 나가 살고 싶다는 꿈도 없이, 그냥 다른 이들도 도시로 나가니까 한 번 가보려 한 건데 그렇게 되었어요. 가끔 농사일이 힘들다 싶을 때는 그때 도시로 갔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요. 도시 사는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정씨들이 명이 짧다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 군대나 갔다 오겠다 하고 제대 후에 중매로 했어요. 결혼 전에 연애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없었고 누님과 형님이 중매로 하셨기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전 지금도 중매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가 결혼하라 하니까 여전히 겁이 나면서도 순종해야지 생각했어요. 이제 나를 분가시키려 하는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선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색시집 지붕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혼인 전에 몇 번 만나긴 했지요. 그런데 ‘결혼 전에 만나는 것이 무어 그리 대단한 일인가?’ 그랬어요. 혼인 후에 열심히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랬죠. 다만, 남자는 싫다 소리 들어도 괜찮으나, 여자는 좀 거절당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 하고. ‘어떻게 사람과 사람인데 내가 먼저 거절하지는 못 한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만 하지 않으면 결혼한다는 마음이었습시다. 여자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고 늘 마음먹고 있었지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것이 어려워 보였어요. 결혼생활이 호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셈이죠. 내가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요.”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제가 다정한 남편은 아니었겠지요. 그래도 제가 밥은 할 줄 알아요. 몇 년 전, 제 아내가 자전거를 타다 양손목이 골절돼 기브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 일도 못하게 됐죠. 그래 내가

가스 불에 앉혀 밥은 하는데 반찬은 잘 못하겠어요. 새삼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살아생전에 엄격하셨어도 어머님께 물 길어 주고 김쌈과 삼베 하는 것도 도와주며 모든 일을 같이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결혼하면서부터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그래요. 설거지도 하고 밥은 당연히 꺼내 먹고 말입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부부 아닌가요. 어떤 선물이나 말 보다는 생활을 같이 나누며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는 믿음으로 만나 어머님 회갑에 맞춰 결혼 한 아내에게 지극하다. 아내와 싸운 기억은 별로 없다. 27살, 26살의 젊은이들이 만나 한 결혼. 그들은 참 잘 만난 부부다. 남편이 과묵하고 깔끔하다면, 아내는 털털하고 유머가 있어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 사람을 웃게 만든다. 따뜻하고 속 깊은 김남숙 여성 생산자와 사이에 1남 2녀를 낳아 다복하고 소박하게 산다.

힘든 고비 고비를 묵묵히 견딘 아내와, 가정에 충실하고 그 가정을 지키려 애쓰고 가족 부양에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는 남편. “전 좀 딱딱한 편인데, 제 아내가 재밌게 얘기하고. 제가 힘들어 하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몸만 건강하면 되지. 그냥 그런대로 살아가지. 그렇게 저를 많이 위로 해주고 그러합니다. 아내의 위로와 격려가 없었으면 농민회 운동도 못했고, 한살림 활동도 하지 못했죠. 아내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아내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내 만난 것을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에 내가 시장을 가서 상을 하나 사왔어요. 여럿이 둘러 앉아 밥 먹기도 좋고 아이들 공부할 때도 좋을 거 같아 사왔는데 야단맞았습니다. 비

싸게 샀다는군요. 그래 무얼 사다 줘도 혼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시키는 것만 해요. 요즘도 종종 시장을 봐오지만, 살림살이는 사오라는 것만 사웁니다.”

아내는 약간 생각이 다른가보다. “무어든지 나한테 물어본다 하는데, 그것도 귀찮아요. 스스로 알아서 할 것도 꼭 물어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물어보면 뭐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뭘 물어보나 마나네’ 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덧 40년을 지낸 결혼생활. 깨소금 같은 재미는 없었으나 부부가 마음을 맞춰 열심히 살았다. 말을 하기는 쉽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듣기 좋은 말은 서로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 생각했다. 농사일을 하고 밖의 바쁜 일을 끝내면 힘닿는 대로 아내를 도왔다. 그는 아내를 돕는다는 생각도 없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아기를 포대기로 업고 다닌 남자로 일찍부터 애처가 명찰을 달은 사람이다.

그는 결혼생활을, 말로만 열심히 사랑한다 하고, 저녁에는 싸우고, 성의 없는 날들을 보내기 보다는, 하루하루 서로에게 충실한 날들이기를 바랐다. 사랑한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며, 그냥 말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고자 노력했다. 그는 매일 매일을 소중하게 살고, 그날들을 아내와 아이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긴 사람이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나요?” 라고 묻자, 그는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모를까, 저는 그런 말 못 합니다”

### **남편은 어떤 분이셨어요?**

“농사꾼으로는 50점이고, 남편으론 80점 정도 줄 수 있어요. 농사일을 잘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농사꾼은 아니에요.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 농사꾼으로 50점이고, 어딘가 특별하게 불평을 꼬집어 내기는 그렇지만, 남편으로 100점 주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고 또 지키려 했고 자상하고 그런 양반이죠. 아버지로도 한 80점이예요. 딸을 귀히 여겨, 어렸을 때부터 아들, 딸 구별하지 말라며 키웠거든요. 매를 들어도 아들한테만 들었어요. 딸은 불평 없을 겁니다. 즈이 아버지한테 말이에요. 그런데 깔끔해서 피곤하기도 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너무 꼼꼼하고 세심하니까. 자기 혼자만 깔끔하면 좋은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래라 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 **무농약 농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논농사는 정말 김매기가 어렵습니다. 60년 대 후반까지는 모두 손으로 제초 작업을 했어요. 70년부터 제초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최고로 쓸 때는 9번까지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못자리부터 수확까지 말입니다. 그 당시는 저도 젊었기에 영농 책을 찾아서 보고, 영농교육도 열심히 받고 해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농약을 많이 사용했어요. 저희 마을에서 같은 다수확품종으로 모두 함께 지었을 때, 제가 젊은 사람으로는 수확이 많이 나는 편이라, 어른들이 저보고 농사 잘 짓는다고 칭찬도 하셨지요.”

“그러다 제가 농민회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게 가정을 벗어나는 동기가

됐죠. 좀 더 넓은 세상과 사회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다수확품종을 심지 않으면 면장이 와서 다른 품종 심었다고 못 자리를 밟고 그랬어요. 그럼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본 다음에 하는 편이거든요. 무조건 다수확품종이라고 재배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가톨릭농민회의 어느 신부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농약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라는 말이었죠. 그러니 ‘농민 회원들 만이라도 농약을 좀 덜 사용하면 안 되겠나?’ 하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좀 부끄러웠고 ‘아,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일하고 살았구나’ 하는 자각심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만 약을 주려고 맘 먹고 9번 주던 농약을 3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 한살림연합의 이상국 대표를 가농 모임에서 만나 한살림 동참을 권유받고 한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톨릭농민회 분위기는 무얼 하기로 한다면 그대로 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가농에서 한다는 일은 다 좋은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분위기였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현실에서 실천하는 그 무엇이 농민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또 해보니까 되기도 하구요. 그렇게 1987년부터 무농약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무농약 농사를 시작하고 나니, 그 해에 수확이 30-40% 가량 확 줄었어요. 그 일로 주위에서 말 많이 들었습니다. 형님도 야단하시고 농촌지도소에서 와서 우리 때문에 주변 농지에 병충해가 번진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쌀이 부족해 정부에서 식량증산에 열중할 시대인데 정부 시책에 반

대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주변에서 정말, 이런 저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 때, 故 박 회장님이나 이상국 대표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말이지요.”

“1980년부터 저농약으로 시작한 논농사를 완전 무농약으로 전환한 것은 1987년이었어요. 가톨릭농민회 활동은 7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농민회 교육 갔다가 신부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신자로서 농민으로서 땅을 보존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결심을 하게 됐지요. 신문 등에 매년 400여명 정도가 농약으로 인해 죽는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었거든요. 마늘, 고구마, 감자, 오이 등 가족이 직접 먹는 발작물에는 그전부터도 농약을 치지 않았습시다.”

“논농사는 힘이 들어도 손으로 김매는 걸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초기를 좀 사용했는데, 이때도 손으로 몇 번 김을 매긴 해요. 그리고 쌀겨농법을 했구요. 쌀겨는 좀 더 수월한데다 좋은 유기질이 밑거름 되는 이점도 있죠. 그 후로 90년대부터 왕우렁이 농법을 하는데, 그래도 서너 번은 손으로 김매기 합니다. 어릴 때도 손으로 김매기 품앗이를 많이 다녀왔어요.”

“왕우렁이는 큰 풀은 안 먹어요. 그리고 먹지 않는 풀도 있구요. 논이 장판처럼 평평하지 않으니 높은 곳엔 왕우렁이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해도 왕우렁이를 두 번 넣었어요. 왕우렁이가 많이 죽기도 합니다. 양식장 환경이랑 수온이 여기랑은 다르니까요. 그렇게 3년 정도 하고 제가 다른 분들께 김매기는 어느 정도 해결되니 한 번 해보라고 왕우렁이 농법을 권했어요. 왕우렁이로 하는 제초 효과는 물만 잘 관리해 주면 쉬워요. 오리농법은 오리 관리가 어렵고, 왕우렁이에 비해 제초 능력도 떨어져 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으로 김매며 왕우렁이 농법으로 농사짓다가 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경작 면적을 반으로 줄이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 **한살림에는 언제부터 참가하게 되셨어요?**

“1986년. 대전의 가톨릭 농민회 모임에서, 이상국 대표가 ‘이제 한살림을 시작하려는데 같이 하자’ 고 권했어요. 가톨릭 농민회에서 하는 일이니 해야겠구나. 했지요. 참 겁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 힘들 때면, 원망은 아니지만 ‘그때 만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농민회의 분위기는 뭐 하자면 금방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해보니까 되는 거고요.”

“故 박 회장님은 굉장히 과묵하시지만 항상 온화하셨잖아요. 늘 웃으시구요. 가농 전국회장도 하신 분이 같이 하자 하시니 해야지요. 다른 사람이 포기하더라도 ‘나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분은 제가 한살림 이전부터 늘 믿을만한 분이다.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한살림 모임이 있으니 와라 해서 갔습니다. 수도권이나 교회에서 모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생산자들과 故 박 회장님. 이 대표님, 음성의 최재명 생산자 이런 분들이 모였어요. 소비자 조합원은 당시에는 처음 본 사람들이라 기억엔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한살림 생산자들은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셈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1987년도부터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말도 많이 듣고, 형님한테 야단도 맞았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당신 땅에서부터 주변으로 병충해가 퍼진다면서 뭐라고 그랬지요. 그때는 쌀이 부족하니까 식량증산이 최고 목표였잖아요. 농협을 통해 영농자금도 주지 않으려 하고, 비료도 주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말도 많이 듣고……”

“농사법을 바뀌가면서, 농민회 활동을 열심히 하자 결심했습니다. 농민회를 조직하는데, 저희 마을에서는 남자, 여자 분회를 따로 운영했어요. 그때까지 농민회를 그렇게 구별해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전국을 통틀어 우리 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권유해 많은 분이 동참했는데, 무농약 농사지는 바로 그해에 거의 다 포기하고 7가구만 남았어요. 김매기도 어렵고 비료는 전처럼 하고 농약을 주지 않으니 병충해가 아주 심한 겁니다. 한살림했던 87년도엔 전해에 비해 수확량이 3~40% 가량 확 줄었어요.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고 무농약 농사를 지었기에 아내가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니까, 크게 다투지는 않았으나 속상해 하는 말을 하기도 했죠.”

“중간에 다른 사람들은 무농약 농사를 많이 포기했는데, 저는 이상국 대표한테 계속 하겠다고 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약속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하는데 까지 하자는 결심이었던 거죠.”

한살림 연합의 이상국 대표의 말에 의하면, 정광영 생산자는 87년도 11월쯤 한살림에 동참했고, 그 당시 무농약 농사를 짓는 농가는 전국적으로 5농가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게 무농약 농사를 시작하고 계속 영농일지를 써오고 있습니다. 한

살림 초기에는 쌀 준비하라 하면, 어떤 때는 5가마, 어떤 때는 3가마이겠어요. 트럭에 실어 제기동, 일원동으로 갖고 가고, 마늘도 점으로 엮어 보내고 그랬죠. 그리고 가능한 한 깨끗이 흙을 털어 보냈어요. 출하되는 무게가 좀 가벼워져 물량에 맞추려면, 작물을 좀 더 보태야 했죠. 그렇지만 도시에서 대부분 쓰레기가 되는 양파껍질이나 파뿌리, 심지어 거기에 묻은 흙까지 시골에선 모두 소중한 겁니다. 웬만한 것은 거의 다 퇴비가 되니까요.”

“도시 소비자도 쉽게 물품을 사는 게 아니란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돈 벌어서 생활하는 거니까, 소비자 조합원을 생각해 최선을 다해 작물을 선별하고, 최대한으로 깨끗한 상태로 보내는 것이 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흙이 아주 안 붙을 수야 없지만, 마늘뿌리와 줄기 자르는 거, 감자의 흙도 잘 털어서 보냅니다. 저도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깨끗한 거 고르고 다른 농산물 살 때 보기 좋은 거 고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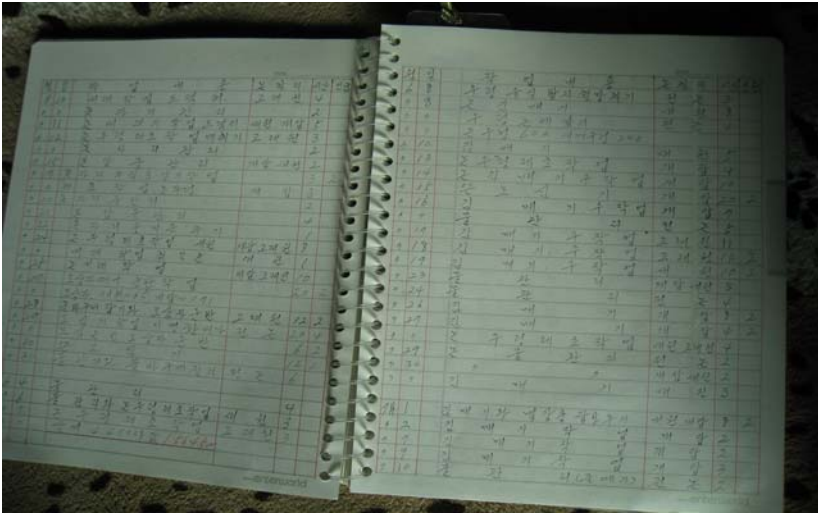
**생산자로서 한살림 활동을 해 온 소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생산자로 참여하게 되며 시작한 한살림 활동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환경과 사람에 대해 눈을 뜬 계기가 되었죠. 생명의 가치로 사람과 작물을 대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모든 자연환경, 작은 풀벌레도 무언가 있어야 생겨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자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생각 같은 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농민운동을 하면서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눈을 뜨게 됐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만, 한살림을 하면서는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을 생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흙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것, 물과 태양도 그렇죠. 나무나 동·식물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주변 환경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풀 한 포기도 소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물을 보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죠. 한살림을 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농사지를 때 김매기는 정말 어려워요.”

“처음 마음보다는 저도 변한 게 있긴 하지만, 모임에서는 서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살림을 알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말입니다. 한살림이 소중한 것은 바로 『한살림 선언』에 나타난 마음이며 이념이라고 합니다. ‘한살림을 통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 않냐’ 하면서요. ‘우리 농민들을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들을 한살림 아니면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요.”

“당진에서 메주를 물품으로 낼 때, 마음고생 많았지만, 또 격려해 주는 소비자와 실무자 덕분에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해 전, 아산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당진 쌀과 관련하여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당진에서 생산된 쌀이 수질검사에서 인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흙살림에서 많이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한살림 고양파주에서 상당한 기금을 모아주고, 우리 생산자들도 개인기금을 모아 관정(官井)을 뚫어, 이제 수질 문제는 없게 되었습니다. 전 그 일이 한살림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수로 써야할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무어든 자원은 아껴 사용해야 하는데 말이죠.”



▲ 정광영 생산자가 결혼 후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는 영농일지

**한살림 농부로서 감회를 좀 말씀해 주세요**

“행복한 농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시중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산비 등을 보장받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15년 전과 비교하면 인건비는 3배 올랐고, 비료 값도 그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영농일지를 계속 써 와서 알 수 있어요. 암만 한살림이 생활자운동이라 해도, 정신운동이라 다짐해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살림 농부로서 농업이 제대로 대우받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한살림을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보게 되었고, 우리가 매일 만나면서도 그 소중함을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꾸려

계속 할 수 있었죠. 내 가족만 생각했던 삶에서 어려워도 여러 사람과 공동체를 꾸려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살림 활동을 하면서 부터죠.”

“한살림 해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옆으로 가려다가도 못 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런 게 많죠. 그리고 농사꾼을 누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우해 주겠어요. 이제 한살림 시작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그때처럼 하루 종일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 당시의 마음이 느슨해진 건 아닌가요?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닌가요? 나이가 들어 그런가? 를 생각하지요.”

“요즘엔 공동체 생산자들이 모여 얘기하면 정말 한살림의 가치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눕니다. 한편으론 도시 소비자 조합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반성하기도 하지요. 저희 공동체에서는 회의 할 때마다 ‘한살림 지향’을 꼭 읽고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한살림의 처음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한살림은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라는 정신을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전에는 농심(農心)이라고 해서, 밥을 넉넉히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과도 나눠먹는 마음이 농민의 마음이라 했는데, 이제 농촌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한살림 회원으로 처음 참가하던 시절의 운동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살림은 이념이라고 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한살림을 해서 자신의 재산이 늘고, 또 조합원이 얼마 증가하고 친환경적인 좋은

농토를 많이 넓혀 좋은 물품을 많이 출하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살림 선언』에 따르는 생활로 생산자와, 실무자, 소비자 조합원들이 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한살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평가는, 우리 모두 『한살림 선언』에 맞게 생활했는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며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한살림 선언』 참 어려워요. 열심히 읽어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 생각하며 노력하지요. 도시에서도 개인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도 중요하지만, 한살림 이념이나 운동의 소중함을 알고,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한살림의 자산은 바로 그런 사람과 마음이 아닐까요.”

### **공동체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한살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공동체를 하자고, 이 마을 매산리 일대 40세대 모두에게 권했어요. 도저히 하지 못할 사람 빼놓고는 모두에게. 벼농사 어려워니, 밭농사부터 무농약 농사로 시작하는 공동체를 하자고 말입니다. 현재 9명이 공동체원으로 있어요. 무농약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치지 않으니 수확이 확 떨어져 중간에 많이 포기하고 나갔죠. 그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겨우 1년 해보고 그만두니, 저렇게 자기 일에 의지가 없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농약 농사를 한다 하면, ‘저 혼자 오래 살겠다고 저런다. 유별나다’ 고 말했죠. 수확도 나지 않는데 그런다고 하면서요. 그런 말 듣기 싫으니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 마실 나와 있는 곳을 피해 멀리 돌아다니기도 하면서요.”

“무농약 농사는 처음에 실패를 많이 하다가, 3~4년 후부터 수확이 조금씩 나아져요. 지금도 차이는 15% 정도 나지만요. 그때는 아내하고 둘이서 한 달에 28일을 계속 논을 땀어요. 한 번 논에 들어가면 허리도 못 펴고 2시간쯤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 했어요. 그때 일 한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논에서 너무 많이 일 한 것 때문에 안식구한테 참 많이 미안해요. 그렇게 하다, 어느 헥가 논에서 메뚜기가 뛰어나고 잠자리도 미꾸라지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메뚜기를 주머니에 넣고, 일부러 동네 사람들 있는 데로 가서 자랑했어요. 전에는 누가 말 시킬까봐 피해 다녔는데 말입니다. 제가 ‘봐라. 메뚜기 나왔다’ 하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이나’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메뚜기가 한두 마리 나타나도 제초제를 주니까 그 독한 약 때문에 메뚜기가 그냥 죽었거든요. 그런데,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니, 메뚜기가 죽지 않고 자꾸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 내밭에서 메뚜기가 다시 날고... 그 메뚜기를 잡아 사람들에게 보여 줬어요. 땅이 다시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셈이죠. 그렇게 해서 무농약 농사를 같이 하게 된겁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니,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무농약 농사 많이 하지 말고, 먹을 것만 먼저 해보라고 권했어요. 자기들 식량만이라도. 그리고 한살림은 100%는 아니지만 영농비, 자재비, 씨앗 값 등을 보장해 주니 장기적으로 농사짓기 좋을 거라고 주위에 말했습니다. 한살림 공동체를 계속 잘 해오니, 이제는 주변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곳으로 오지 말고 자기 사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라 말하지요. 그리고 한살림 교육을 가보면 때로 진정한 농사에 관심 있다기보다 물품 출하에만 관심 있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안타깝죠. 한살림은 이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본래 운동이잖아요. 무농약, 유기농으로 농사 지어 물품 출하는데 더욱 치중하는 건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꾸려 가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사회라는 거는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거고, 누군가는 심부름을 해야 해요. 처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까진 해야 된다 각오해야 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좋아서 하는 면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공동체와 농민 중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살림의 구성원이니 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죠. 때로 힘들고 내 가족생활에 지장이 좀 있어도, 이 일은 나의 임무다.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식구가 알아주고 도와준 것이 고맙습니다.”

“우리 매산리 공동체의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힘들어 농사짓지 못 하겠는데, 한살림이 너무 재미있어 밀어내도 나가지 않겠다고요. 우리는 벼농사도 다 같이 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회의하고 그래요. 한 번은 정기회의입니다. 농번기 때 농자재 구입도, 물품 출하도 함께 하고, 회의나 행사도 같이 참석하고, 놀러도 같이 가고 그러지요. 일본, 중국 여행도 갔다 왔어요. 공동체의 공동밭에서 나온 수익을 모은 것과 개인 회비를 걷어서 말입니다.”

“공동체 인원은 10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주 만나야 불화도 적고, 물품 생산 과정과 재고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물류연합에서 배추 200포기, 무 300개 등으로 물품 요청이 오면, 각 집에 있는 물품 양을 잘 알고 있어

야 출하할 양을 서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기농 농사는 서로가 잘 알고 지내야 하고, 농지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지도 덜 오염되고요. 또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논에 가서 보면 알거든요. 제초제, 농약을 사용하는지 아닌지. 저는 좀 의심스러우면 당신은 논농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잘 하려면, 내가 많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회의 나오라 하면 가야 되고, 교육 받으러 오라 하면 또 나가야죠. 모두 바쁘니까 잘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력을 해야죠. 서로 보살피려 하고,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마음이라 할까요. 어려운 일은 내가 좀 더 하고. 회원들을 다독여려 주고 하면서. 꼭 한살림 일 아니더라도, 가정의 일이라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잘못된 것 있으면, 어머니가 아이들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때론 좀 참고. 부모가 자식들 정말 잘못된 건 혼내도, 대부분 예뻐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오래 참고 화도 내지 말아야 하고 좋은 일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정의. 그게 맞거든요. 행동과 생활이 중요해요. 눈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죠.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머니들이 자식한테는 정말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잖아요. 목숨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서요. 자식 일이 잘 되면 그냥 동네방네 막 자랑하며 다니고요. 그 정도가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1/100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어려운 것을 내가 하는. 백번 말로만 하지 말구요. 공동체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안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생활을 같이 해야죠. 나도 바쁘지만, 그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하고 거들어 주고, 나도 바쁘지만 품삯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슬픈 일 있으면 함께 하는 삶. 실제 살고 있는 생활을 함께 나누지 않음 안 되죠. 저희 공동체원들과는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정공동체도 꾸리기 어렵다는데, 저희는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해요.”

“공동체원들 간에 서로 가정 얘기도 하고, 농자재 구입과 출하도 함께 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 좋습니다. 한살림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활을 함께 한다는 생각, 정말 좋지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좋은 모임인데, 그 모임의 한 구성원으로 있다는 거 굉장히 보람차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혼란스런 시대에 말입니다.”

###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어요?**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 동안에는 제가 많이 했지만, 이제는 대표를 돌아가며 해보자 했어요. 그랬는데, 이 일은 아주머니들이 대표로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회의나 연수가 있으면 2~3일씩 집을 비워야 하고, 현실적으로 밖에서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여러 작목별로 회의 참석하는 것도 상당하고, 한살림 일도 많아 한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돌아가며 2년씩 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 이제는 일을 나눠서 하자 정했습니다.

회의 주제와 꼭 참석해야 할 회의는 내가 가고, 품목별, 작목별 회의는 서로 나눠 참가하고 그래요. 앞으로는 누가 대표를 맡더라도 내가 중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알아야 하지요. 회원을 이끌거나 단체를 끌고 가는 힘도 그런데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상대방더러 나가라고 하지요. 왜 그래요. 나가려면 자기가 나가야죠. 그러니, 내가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남숙 생산자님은 남편분과 갈등이 없으셨나요?**

“나 같은 경우는, 남편이 저런 일들을 책임지다 보니, 회의에 교육에 나갈 일이 많잖아요. 집에 일이 쌓이고. 또 일이라는 게 오늘 해야지.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일이 더 급하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매일 짜증내고, 또 일하지 않고 나간다고 잔소리 한 기억만 나요. 초창기에, 농사를 다 절단 냈을 때, 사람들이 비웃고 그랬을 때 말이에요. 우린 우리대로 어렵죠. 애들 가르치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럼 짜증내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엔 사람들이, 소비자 조합원들이 고맙다 인사하고 찾아오고 우리한테 잘 하고 그러니까 보람 있습니다.”

“우리가 한살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 하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 집 양반은 대쪽 같은 성격이니까요. 한살림 식구들 앞에서는 꾀죽도 못하고 딱 부러지는 일만 하기 때문에 더 힘들죠. 이걸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 생각하니 대표는 아무나 하기 힘들겠어요. 그래도 한살림 식구들이 있으니, 가족처럼 하기 때문에 맘 속 얘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힘든 일들이.”

“공동체 이끄는 거나 한살림 하는 거 보면, 우리 양반이 짝 물고 해나가는 무엇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하고, 많이 하고, 내가 손해 본단 마음으로 해야 누가 따라주죠. 그리고 나는 우리 아저씨 맘 고생할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노동일 할 때 어려운 거는 좀 쉬든가 피할 수가 있는데, 마음 고생하는 거는 피할 수도 없는 일이라 더욱 그래요. 한살림 안 했다면 저런 고생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마음도 괜히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 늘 기도하고 성경구절 읽으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대표지 나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조심하려 하죠. 내가 설치거나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매산리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귀가 없시유, 눈이 없시유. 그 양반이 말 따로, 몸 따로 그랬으면 우리가 믿고 따르것시유” 라고.

### **가톨릭 농민회에서 활동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젊어서부터 마을 총무로 여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제가 30대부터 가톨릭 농민회 활동에 대해 알고 참가하게 되었죠. 70년대 중반과 80년대 초반에 故 박 회장님과 이상국 대표님이 우리 집에도 자주 오셨어요. 추수감사제 행사도 많이 하고. 가톨릭 농민회를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죠. 그리고 가농 회의에 참석해보니, 농민이 너무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정책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소외돼 있고, 가격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많았죠. 소득에 비해 세금도 많이 나오구요.”

“이런저런 일로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저 뿐만 아니라, 안식구, 마을 분들과 함께 교육 받으러 다녔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겨는 해야 한다, 농민으로서도 그렇고 신앙으로 봤을 때도 정의로운 일이니 해야 한다고 권했죠. 제 안식구도 한살림 모임이나 교육에 다녀와선 이것은 나와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다 하며 했습니다. 누구 보고 하라고 하기보다 그냥 내가 어쨌건 먼저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것 보단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살아오는데 있어, 정말 세상을,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이런 것

을 알게 됐단 거는 저한테는 아주 큰 전환점이죠. 때로 어려움도 있었어요. 동네에서 주민들과는 싸운 적은 없지만, 경찰서장, 군수, 면장, 조합장 이런 사람들과는 싸웠습니다. 물론 주먹다짐이 오고 간 건 아니구요.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싸워 나가는 거죠. 수정해야 할 것,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 등을 위해 노력해야지, 왜 당신들이 군림하고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며 그런 것들을 놓고 싸웠죠.”

“말로 격하게 싸우고 농성하게 된, 그 밑바탕에는 종교적인 가르침, 정의로운 등도 있지만, 농민회를 통해 그런 부당한 일에는 맞서야 한다는 의식이 생긴 겁니다. 가톨릭 농민회 활동을 통해서 저의 인생에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죠.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다 했고, 설명하면 동참자도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적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땐 좀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故 박 회장님과 이상국 대표를 만난 일, 한살림을 하게 된 것들이 차례로 일어났고, 운동을 한다는 것이 이젠 제게 자연스런 일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 활동이 자연스럽게 한살림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TV시청료 거부 운동을 한 것과 수도세 인하 운동을 한 것. 그리고 농협 회장 직선제 선거를 위한 운동 등, 그와 가톨릭농민회가 뿔뿔 뭉쳐 함께 한 활동과 운동은 많다. 이 땅에 민주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 농촌봉사대를 받을 지역도 없었다. 그러나 충남에서 당진 지역은 대학생 환영 현수막을 걸어 놓고, 언제나, 꾸준히 봉사활동 오는 대학생을 받고, 지원했다. 그만큼 지역의 가톨릭농민회 조직이 단단했다.

“운동 한참 할 때는, 우리 어디 못 나가게 하려고, 경찰들이 맨날, 우리

집 길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털 어디 가지 않는다’ 고 ‘좀 들어와 쉬라’ 고 해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밭에 가면 또 따라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 추운데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고. 서로 참 갑갑했슈.” 김남숙 여성 생산자의 말이다.

## 한살림에 대한 생각

부부 모두 무농약 농사를 처음 지었을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회고한다. 농사에 실패했을 때, 이웃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비난을 들었던 시절이다. 그 후에는 한살림이나 무농약 농사에 대한 갈등은 없다. 그들은 무농약 농사하느라 고생했다 말하면, 이렇게 답한다. “다들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다 자기 먹고 살자고 했지. 내 고생해서 다른 사람 먹여 살린 거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 **한살림 조합원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농산물이 조합원에게 전달되면 조금 나쁜 것이 공급되더라도 한살림이 농약 치지 않는 농사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면 싶죠. 좋지는 않아도 나쁘게 기른 거 아니니까, 좀 괜찮다 해주면 고맙겠어요. 시중 거와 비교하지 말고. 시중 것처럼 키우긴 어렵거든요. 그렇게는 도저히 되지 않죠. 그리고 저희에겐 더 잘 가꿔야 하는데 못 가꿔서 미안한 맘이 항상 있어요. 조합원들도 옛날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까다로운 분들도 좀 줄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생산자들은 정말 농업은 소중한 거다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신까지만 하고 자식들한테 시키지 않겠다고들 해요. 농업은 모든 산업 중에 근본인데, 생명과 사람,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은 크죠. 특히나 한살림 생산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소중한 직업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 만큼, 조합원도 농작물을 대할 때, 생산자를 만났을 때,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한살림이라는 좋은 이념과 가치를 위해 함께 한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므로, 언제나, 처음 시작한 그 때의 마음을 가진 한살림은 동지이며, 친구라 말하고 싶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자신의 삶에 그것을 실현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 얘기가 되는 관계입니다. 조합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정을 갖고 생산자들을 격려해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 온 그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생각하죠. 다른 생협도 아닌, 한살림 사람들이니까요.”

### **한살림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 『한살림 선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뜻이 숭고하다 해야 하나, 마치 성경 말씀을 줄여 놓은 거 같잖아요. 한살림 운동 같은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살림을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이해와 농작물을 친환경으로 가꾸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자랐습니다. 한살림적인 시각으로 사회와 정치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살림 지향’ 같은 거를 읽으면 죄책감 같은 것을 느

깎니다. 고백성사 보는 것처럼. 잘못하면 가슴이 찢리잖아요. 자꾸 기도하듯이 묵상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야 멀어지지 않죠. 한살림은 누가 뭐래도 생산자들은 조합원의 안전한 밥상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그런 책임감이 있고 조합원들은 농업을 살린다 생각합니다.”

“올해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수해로 피해가 나고 그래도 한살림 농지는 피해가 덜했어요. 비가 많이 오니 어쩔 수 없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내 땅은 살아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땅이 그만큼 힘을 찾은 거지요. 무농약 농사지어서. 흙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정직합니다. 무얼 심어도 잘 된다 하는 그런 자신감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살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서로의 삶을 나누려 하는데 있어요.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 이게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이 혼란한 세상에, 이처럼 좋은 모임의 한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분들 만나서, 제가 옆으로도 못가고, 도망도 못가고, 한살림의 모든 분들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며, 농부들에게 잘 대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을 만날까?’ 하는 마음이 늘 들지요.”

“한살림 생산자들은 유기농업 하는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가족처럼 서로 생각하며, 이 사회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와 농산물 출하보다 자신이 어떠한 모습의 한살림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었으면 하지요.”

## 한국 농업에 대한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농부는 나와 가족, 땅을 살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할 만한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이나, 농민을 조금 바보스러운 사람, 모자라는 직업으로 의식하는 경향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소외되기도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들 모두 먹을거리, 농민, 농법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장래가 없어요.”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이 25%, 쌀을 제외하면 5%라고 하죠. 벼농사가 우리나라 농업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에 밭보다 논이 더 많습니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논이 갖는 가치는 참 크잖아요. 그러니까 쌀만큼이라도 지켜야죠. 벼는 주식이고 생명이니깐요. 그래서 저는 환금성이 좋은 다른 작물로 전환하라 해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벼를 심어 쌀을 수확할 겁니다. 천만금이 나온다 해도 벼 대신 다른 거는 심을 수 없어요.”

“주식 식량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짓는 농사가 실제 3600평입니다. 그렇게 농사 지어 수익은 한 해에 아주 잘 나오면 1800만 원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만이라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논농사도 그렇지만 밭농사에는 트랙터도 필요한데 비싸요. 경운기로는 힘이 부치구요. 그래 요즘에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 농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고맙죠. 이제 40년 결혼 생활을 지냈습니다. 항상, 별 말없이 따라주고, 운동할 때는 지지해주고, 아이들 잘 키워주고 항상 고맙다 생각해요. 가톨릭 농민회 활동과 한살림 일로 집을 자주 비운 것을 이해해주어 더 감사하죠. 부부 생활을 돌아보면, 우린 크게 싸운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어머님 모시고 살 때, 마음 상해 하길래,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했던 기억은 있어요. 부부는 서로 노력하면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린 정말, 무리 없이 평범하고 원만한 생활을 해 온 거 같습니다.”

“난 맨날 짜고, 잔소리 한 기억밖에……. 별로 해 준 것도 없구. 그래도 집안 일 잘 도와줘 고맙고 그래요. 요즘도 연수다 회의다 해서 밖에 나가는 일도 많고 자고 오는 날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우리가 늙어, 같은 날 가는 일이 힘드니, 혼자 사는 연습한다 생각해요. 우리 애들한테는 이 세상에 나서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우리 아저씨가. 남한테 말 들으며 살면 안 된다 하고. 평생을 그렇게 말 한 대로 살은 사람이니 내가 더 고마워요.” 아내 김남숙의 말이다.

27살. 결혼하며 분가해 나온 그때의 그 집에서 그들 부부는 계속 살고 있다. 변화 없는 생활. 변함없는 날들. 부부는 서로 바라본다. 잔잔하게. 말은 시원하게 해도 언제나 남편에게 공손한 아내. 그 아내를 향해, 사랑한다는 말만은 부끄럽고 좀 뒤해서 못하지만, “그대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더 크고 단계 높은 사랑을 매일, 매 순간 보내는 남편이 있다.

중조부부터 모신 산소가 밭가에 있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성모상. 평온함과 고요가 그들 집 주위에 가득하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

씬 더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 당진. 외고집쟁이 한살림 생산자 정광영 선생님. 그와 그의 아내는 그렇게 오늘도 살고 있다. 🌱

**매산리 공동체 공동밭은?** 매산리 공동체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밭이 있다.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공동자금도 필요해서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회비를 걷었다. 그러다가 땅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 놓고 있는 땅 700여 평을 빌려, 무, 배추, 감자, 생강 등을 심어 공동으로 농사짓고, 수익금을 함께 관리 한다. 그렇게 관리해 상당한 기금을 모았다. 혹시 구성원 간에 급한 돈이 필요하면 빌려 쓰고 또 채워놓고, 공동체 회식비용도 그 기금에서 지출한다.

## 정광영 생산자 약력

- 1944년 4남매 중 둘째로 출생
- 1959년 중학교 졸업, 농사짓기 시작
- 1969년 군 제대(6월), 아버지 돌아가심(10월)
- 1970년 김남숙과 결혼, 이때부터 지금까지 ‘영농일지’ 를 써옴
- 1972년 지금의 주소지인 매산리 새터마을<sup>3)4)</sup>로 옮겨 옴
- 1974년 친환경 농업 시작.
- 1975년 지역에 가톨릭 농민회(가농)가 들어옴
- 1977년 가농 가입. 이후 농촌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
- 1985년 가농 신자교육에서 신부님 강의 듣고 친환경 농사짓기를 결심.
- 1987년 한살림 공동체운동에 참여하여 한살림에 쌀 출하
- 1990년 거의 모든 발작물을 무농약으로 재배
- 1995년 매산리 공동체 결성
- 1998년 가톨릭 대전교구 농민회장에 선출됨
- 2002년 민간(한살림)인증 유기농산물 제1호 지정  
공동체 차원에서 왕우렁이 농법 시도
- 2012년 현업에 종사 중

---

3) 삽교호 방조제 공사로 논이 많이 생기면서 생긴 이름이다.

4) 당진은 우리나라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 탄생지, 매산리 주민 중 60%가 가톨릭 신자이다.

## 땅이 부르는 소리

최재명 생산자





**눈을 뜬다.** 새벽, 따스한 땅의 기운이 부드럽고 나지막이 자신을 부른다. 동이 터오는 이른 아침, 평생을 한결 같이 그 소리에 잠이 깨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땅을 밟는다. 논물을 살피고, 밭의 흙을 어루만지며 속삭이고 다스려 마침내 땅과 친구가 되고 한 마음이 된 농부.

그 시간에 만나는 들판과 논은 그의 우주다. 아련한 그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루어내어 자신을 살아 있게 해 준 꿈의 장소. 그의 밭 밑에서 신비한 세상을 그에게 보여 준, 자신이 힘써 이룩한 농부가 꾸는 꿈의 전부다.

한살림 생산자인 최재명 생산자. 얼굴의 주름은 깊고 손은 매우 거칠다. 눈빛은 부드럽지만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움이 있다. 그러나 바라보는 눈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이해가 있다. 맞잡은 손을 통하여 세상을

잘 살아 온 농부의 순박한 목화솜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땅과 세상을 자신과 타협하고 함께하며 어울려 살게 한 단단한 힘이며 유연한 마음이다. 그를 평생 천직인 농부로 살게한 거칠지만 부드럽고 신기한 땅의 힘.

2011년 현재 그는 일흔 여섯이다. 부드러우나 심지가 굳은 눈빛과 몸의 자세. 흔히들 말하는 ‘최가 고집’ 이라 하는 강인한 면은 유기농 농사 얘기, 농약 치는 사람들 얘기, 가톨릭 농민회 활동 얘기, 왕우렁이, 새뱅이, 한살림의 오늘과 미래 등에 대해 얘기할 때만 나타날 뿐이다.

어려서부터 농사만 알았고 평생 일 했지만 후회는 없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살기 위해선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데,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이 먹는 것을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깨끗하게 농사를 지어서 기르는 것이 최선이며 가장 큰 보람이라 말한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가 대견하다. 농사 이외의 다른 무엇을 했으면 하고 생각한 적도 없다.

성경에는 농부와 농사일을 비유한 구절이 많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그는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한다. 그의 집, 안방 상 위에 잘 모셔진 십자가와 성모상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따르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한다. 자신은 땅에 베풀 한 포기 심은 거 밖에 없지만 키워주는 것은 하늘이라 생각한다.

농사를 도와 준 왕우렁이도 그렇고, 요즘 열을 내어 양식하고 있는 새뱅이도, 환경오염을 줄여주는 유익한 것이면서도 저절로 잘 자라고 일도 해준다. 그것들을 키우는 자신이 보호하고 준 것보다, 백 배 이상으로 보답해주는 생물들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비 속에서 농사를 짓고 그런 작물

을 키우기에, 사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동물의 세계를 좋아하고 유심히 즐거워하며 본다. 그의 눈앞에서 자연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신기하고, 그것들을 있게 한 것에 마음 깊이 감사한다. 모든 것이 가능한 조화로운 이 세상.

그는, 그러한 신비와 조화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느라 좀 더 좋고 나은 곳에서 살았으면 하고 바랄 여유도 없었다. 이곳이 아닌 저 곳을 그리워하지도 않았다. 내가 딛고 살며 농사짓는 이 땅이 그저 가장 행복한 자신의 생활 터전이라 믿고 있다. 그는 고집은 셀지 모르나 유연한 성격과 온화한 인품을 가졌다. 평생 남의 말에 휘둘리거나 과한 것을 탐내지 않았다.

다만, 옳은 것이라 생각되는 것에는 평생 외골수로 살았다. 한 눈 한 번 팔지 않고 뚝심 있게 그 길로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유기농 농사도, 왕우렁이 농법을 보급하는 일도,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열심히 한 것도……. 이제 토종 민물새우인 새뱅이를 양식해 보급해내는 일까지.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확신이 서면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실천했다.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신명나는 세상을 살았다고 말한다.

언젠가 TV에서 인간행복지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그는 자신의 생활에 불만이 없다. 다만, 돌아보면 본인의 인생은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애쓰고, 그 한 가지만을 다짐하며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삶이었다는 것에 자부심과 위안을 얻는다.

함께 밥을 먹으며 정담을 나눌 때는 그저 인자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눈빛이 되어 때론 기뻐하고 수줍어하며 젊은이를 귀여워한다. 여든도 젊은 나이로 말하는 요즈음이긴 하지만, 농사일을 보살필 때나, 애기를 나눌 때, 그의 허리는 꼳꼳하고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다. 기쁘다. 이런 모습과 마음을 가진 최재명 생산자이어서.

## 가족 이야기

그는 1935년생이다. 고향에서 16대 째 농사를 지은 집안의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모님 성함은 최학섭, 반병혜이다. 아버님은 예순 둘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일흔 둘까지 사셨다. 한량이었던 아버지에게 기대치 않고 집안 살림을 책임지느라, 어머니는 한평생 일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부지런하고 반듯하고 결코 헛되지 않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던 어머니를 그는 많이 닮았다. 엄마가 안타까워 어떻게든 형제를 보살피려 했던 그 결코 엄마와 형제가 힘든 것을 그는 견디지 못한다. 좀 더 나은 생활을 가족에게 주기 위해, 그는 열심히 땅이 부르는 소리에 대답했다. 절대로 그를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는 부드러운 그 소리에.

집안을 책임지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도 집안 내림인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노는 것을 업으로 삼은 것 같았다. 한량이었던 그들에게 노름과 여자는 공통 관심사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에 따르면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증조할머니를 세 분이나 두었다. 세 분 할머니 중, 막내인 셋째 할머니가 그를 제일 귀여워했다. 어찌나 귀여움을 받았는지, 연로한 나이가 된 지금에도 증조할머니가 자신을 귀히 여겨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여름에 말이여. 내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 눈도 잘 보이지 않던 그 양반이 나를

위해 손부채질을 하고 있었다야. 꾸벅꾸벅 졸면서도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손을 휘휘 흔들면서 말이에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귀여움 받던 기억은 즐겁고 행복하다.

남편이 살림을 돌보지 않으니 어머니 혼자 일을 해야 했다. 그렇게 농사 일과 품앗이에 힘들어 하는 엄마가 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착한 아들은 어머니를 도와 무슨 일이든 했다. “내가 어려서 조그마했을 때, 밭에 데리고 나가면 엄마가 짐승하러 집에 들어갔다 와도 마냥 쪼그리고 앉아 일 하고 있었대요. 혼자라도. 계속해서 아주 열심히 말입니다.” 그 당시 소년 최재명은 고생하는 엄마를 절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마음먹은 그는 험한 일은 언제나 자신이 하고 동생에게는 좀 더 쉬운 일을 하게 했다. 논농사 같은 힘든 일을 가족 누구와도 결코 나눠 하지 않았다. “나 혼자만 죽어라 하지. 누구 시키면 안타까워서 절대 그렇게 못해요. 원래 다른 사람한테 일 시키고 남을 부리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런데다 동생은 약했어요. 어디 일을 시킬 수나 있었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 하고 싶어 하면 힘든 일도 힘들지 않지만, 남이 시켜서 하면 그냥 힘들고 하기 싫은 법이거든요. 나도 아버지가 일하라 하면 절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최가 고집 그대로다.

그는 고생만 한 어머니가 무척 자상한 성격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 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단다. “그러게. 평소에는 암말도 안 하세요. 잔정을 많이 주는 다정한 분이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잘못해 야단치면 눈물이 쭉 빠지도록 무섭게 했어요. 그래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젊을 때

열병이 나서 무척 아팠거든요. 모두 죽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많이 빌고, 어디 가서 종단 것도 하고. 장독대 위에 물 떠놓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웃집 사람이 천주교 믿으면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며느리 병 낫는다 하니 그길로 천주교를 믿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아픈 며느리를 위해 이웃이 권하는 대로, 천주교회에 나가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받는다. 그리고 정말, 오래 앓던 며느리의 원인 모를 병은 나았다. 그러나 아픈 것이 나아도, 어머니 혼자만 종교생활을 한 10여년 열심히 했다. 묵묵히 아들 부부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의 뜻에 따라 아내가 먼저 천주교에 입문하고 그 뒤에야 그가 믿기 시작했다. 종교를 받아들인 후, 그들 부부는 오늘날까지 기도와 묵상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 어머니의 임종

“생활 능력 없는 남편을 대신해 열심히 일만 하던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도 꾀꾀했어요. ‘엄마 암이래요.’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슬퍼하는 표정도 없고. 아주 덤덤한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준비하라’ 고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교황님만 보면 된다’ 고 했어요. 그 해에 로마에서 교황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를 방문 했는데, 그 양반이 비행기에서 내려, 우리 땅에 친구(親口)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그냥 옆으로 스르르 누우시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뭐, 암으로 아프시다고 제대로 뭘 해 드린 기억도 없어요.”

“그때는 암이라 해도 수술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

든요. 또 암이라는 걸 알고서도 몇 해 더 사시긴 했지만. 헤드릴게 있어야 죠. 그저 간단한 약이나 사드리는 것 정도나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아픈 엄마를 어떻게 위로해 드린다고 보다, 그저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하고, 혹시 내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타내지 않고, 어머니 맘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권유에 따라 천주교에 입문했으나, 성경을 따라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의지다. 처음 천주교를 나가게 된 계기는 이렇다. “방에 누워 있다가 안사람이 갖다 놓은 교리문답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은 천주님을 알아 모시고 천주님을 공경하여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 태어났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생각했지요. ‘그럼 나도 사람인데 천주님을 알아 내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거 아니가?’ 하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싶어 책을 열심히 읽고, 아내에게 물어보고 그러다 영세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해, 1962년 아내와 함께 영세를 받았다. 최시몬과 원사리나. 이후로 신앙생활은 그이 삶의 바탕이 되고 의지가 되고 생활태도가 되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아침 밥 일 나갈 때, 쌀 한 톨 넣지 못하고 거친 조만 넣어 지은 조밥. 그것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갖고 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먹을 수 있는 것은 흰 죽. 죽이라고 해도 사람 그림자까지 어른어른 비추는 아주 멀건 물 같은 죽이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집에 들어오는 길로 그 죽을 일고여덟 사발은 들이켜야 허기가 면해졌다. 그가 살았던 젊은 날은 모두가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으나,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좋은 날이 오리라 믿고 살았던 세월이었다.

## 전쟁, 그리고 결혼

한국전쟁 전에 정혼을 했던 사이인 그와 아내, 원정혜 여성생산자는 전쟁 중인 1952년에 결혼한다. 열여덟 살과 열일곱 살인 신랑과 신부. 한 살 위의 신랑에게 시집 온 그의 아내는 친정에서 귀여움 받고 자랐다. 그녀는 친정에서 집안일을 도와 밥을 하며, 산과 들로 나물 따러 다녔던, 세상사는 걱정 없이 마냥 즐겁고 순진하기만 한 젊은 처자였다. 그러다 칠없는 나이로 시집와, 처음 시어머니와 함께 일을 할 때, 어린데다 힘이 부족해 많이 힘들었다 한다. “그때 말이에요. 내가 몸이 작으니까 절구질을 하면, 절굿공이에 몸이 딸려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일하다, 내가 스무살이 넘으니, 그때서야 몸에 힘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이 손에 익었어요. 그러니까 좀 덜 힘들고 살만해졌어요.”

고향인 음성 지역은 충청도에서도 오지에 속한 곳이라 한국전쟁 중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별일 없으리라 생각한 전쟁이 의외로 길어지고, 큰 길가에 피난민이 오고가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기만 했다. 그러다 1.4 후퇴 당시, 서울로 올라갔던 피난민이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잠시 증평에 있는 친척집으로 피신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20여 일을 머무르다, 들고 갔던 양식이 떨어지고 별 일 없는 것처럼 생각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와 보니 그의 집은 다른 피난민이 벌써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

“집에 와 보니, 우리 집에 벌써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서로 끼어 자고 그랬죠. 그러다 할 수 없어 우리도 그냥 버려져 있는 집에 들어가 우선 살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 집서 나무 해다 불 때서 밥 해먹고 지내고 그랬죠.” 그런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전쟁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의 가족은 고향집에서 평생을

살고 있다.

결혼 후 그는 군대엘 간다. 아내는 혼자 시집살이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고 농사일을 했다. “그때, 내가 뭘 알아야죠. 나는 친정에서 일도 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들판으로 놀러 다니기만 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예뻐 하셔서 그냥 그렇게 마냥 살았어요. 그러니 시집와도 뭘 할 수 있어야죠. 그냥 부엌일이나 하고 시어머니 도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시어머니도 아직 늙지 않은 나이어서, 같은 해에 딸과 시누이가 태어났다. 시어머니는 밭에 나가 일하고, 젊은 새댁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줄지에 어린 아이 둘을 키운 셈이다. 그러며 집안일을 맡아 하고 신랑이 제대하기를 기다린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군복무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때여서, 대략 4년간의 군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다.

## 땅을 마련하다

그의 가족은 그때부터 함께 일하고 아껴가며 돈을 모으고 땅을 사기 시작한다. 물론 그전에 자신들의 땅이 있기는 했으나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었으므로 형편이 될 때마다 땅을 사 모은 재미와 보람이 정말 좋았다. “무척 기뻐어요. 막내딸 낳고 처음 큰 땅을 샀거든요. 그래 우리 막내를 할머니가 아주 귀여워하셨습니다. 그 아이 낳고 살림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아내의 회고다. 그의 나이 서른에 처음 갖게된 반듯한 땅. 제 땅을 늘려가는 모든 농사꾼들의 마음은 다 같을 거다. 기쁨과 보람, 자랑스러움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야말로 땅만 바라봐도 배부른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농지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농지 개혁은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국가가 수매하여 농민에게 한 해 수확량의 150% 가격에 분양하고 토지 구입 금액을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이 일이 그 당시, 농민들에게 땅을 마련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는 당시에, 논 1200여 평과 밭 800여 평 정도를 마련했다. 그런 제도의 개혁이 없었다면 농사꾼이 땅을 갖기는 어려웠을 거라며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시절이었다고 그는 회상한다.

## 자식 이야기

그는 2남 3녀를 두었다. 장남은 현재 타지에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벼농사를 한다. 둘째 아들은 안타깝게 일찍 앓았다. 둘째에게는 반드시 농과 대학에 가야한다는 조건을 달아 대학까지 공부를 계속하기를 권했다. “그 애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도시로 나가 살고, 나는 부모님과 농사를 짓겠다고 했었죠. 그래, 내가 ‘너는 꼭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려면 농과대학을 가야한다’ 고 강요한 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농과대학을 알아봤다. 그러나 막상 농과대학을 찾으려니 별로 없어 광주에 있는 대학에 농과가 있어 시험 치라고 보냈다.

집안 형편을 아는 둘째 아들은 함께 대학 시험을 치러 간 친구들과 그냥 돌아왔다.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 되었단다. “왜 왔느냐? 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 애가 시험을 친 그 다음 해인 80년에 광주 민중 항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냥 대학 다녔으면 어땠겠어요? 그냥 끌려가거나 그랬겠죠. 그제야. 아이고,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어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로 되는 일이구나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착하게 부모님 농사일을 열심히 돕던 둘째는 한 여름, 일하러 나오면서 배가 아프다며 길가에 쭈그리고 앉았다. “심하게 힘들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별 일 있겠나 싶었어요. ‘그래 그럼, 너는 좀 있다 오너라.’ 하고 발에 갔어요. 그런데도 한참을 지나도 오지 않아 기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이 오더니, 애가 발뚱에 누워 너무 아파 힘들어 하기에 병원에 가라 그랬다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병원에 간 둘째 아들은 바로 입원했다. 병원에 있는 아들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밤 중,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사람이 뛰어왔다. 그 당시, 동네에는 단 하나의 전화가 있었다. 아들이 무척 위급한 상황이라 했다. 택시를 타고 달려갔으나, 아들은 허무하게 갔다.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한 채. 부모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은 둘째 아들을 잃었다.

그의 아내의 말이다. “어떻게 멀쩡하게 병원에 온 아들이 하루 만에 죽을 수 있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아들은 이미 가고 말았는데 말이에요. 자꾸 얘기하면 우리 맘만 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렇지요. 그 후로 그 병원 있는 쪽으론 통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러 갔어요. 그 병원에. 그냥 마음이 아프죠. 지금도 생각하면 속상하고 그래요. 내 맘속에 응어리가 생겼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따져보고 싶어요. 병원에서 힘없이 누워있던 애가 나한테 그랬어요. 인절미를 다섯 되만 해오라고.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병원 사람들 나눠주게요. 하더라고요. 그 앤 그렇게 착했어요.” 그 인절미를 먹어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갔다. 그렇게 마음에 묻은 둘째 아들.

그는 “둘째 애가 그렇게 간 것이 무척 마음 아프고 후회도 되긴 했지만요. 농사지으라고 한 거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니에요. 난 권장만 했습니다. 뭐. 농사는 아들이 자유로 정한 것이니까요.” 어찌면 그를 쪽 빼닮은 막내아들이었나 보다. 기질이나 성품 모든 것에서.

둘째를 잃은 지, 십 년쯤 지난 후에 큰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손자 셋을 남겨두고 떠났다. 이후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도우며 표고버섯을 키우고 있다. 손자 셋을 양육하는 즐거움과 의무가 그들 부부에게 주어졌다. 덕분에 살아야 할 힘과 추진력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딸 셋은 모두 결혼하여 청주, 부천, 등에 살며 그들 부부를 알뜰하게 보살피는 효성 지극한 효녀들이다.

## 유기농업 이야기

농사는 담배 농사부터 시작했다. 그 당시 담배는 수익성 높은 작물이었다. 담배는 300백 평을 일단으로 계산한다. 담배농사 일 단을 지어 수확하면 정부 기관인 전매청에서 쌀 열 가마 가격으로 구매했다.<sup>5)</sup> 담배 농사를 한 10년 하니 싫증이 나서 작물을 고추로 바꿔 농사지었다. 고추도 몇 년 지으니 병이 돌아 논농사로 전환했다. 몇 천 평 고추 농사를 해봐야 가족이 먹을 고추도 수확되지 않았다. 그래서 벼로 작물을 바꿨다.

논농사를 시작했으나 천수답이어서, 비가 오기를 기다려 농사를 지어야 했다. 계절로 따지면 중복이나 돼야 늦은 모를 심을 수 있었다. 심는 것이 늦으니, 자연히 알곡이 잘 맺지 않아 수확이 별로 없다. 논에 물대기가 어려워 힘들었는데, 동네 우물이 생기고 나서 한숨 돌렸다. 처음 농사는 논

---

5) 최저명 생산자에 의하면 밭은 단 수로 계산하고 논은 평수로 계산한다고 한다.

이 얼마 되지 않아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으나 차츰 눈을 늘려가 괜찮았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지역에서 농약 사용이 점점 늘어갔다. 당시에는 DDT와 파라치온 등을 커다란 통을 메고 다니며 많이 뿌렸다. 상당히 독한 농약들이었다. 농약에 대한 교육이란 것을 받지도 않고, 겨우 농약을 칠 때는 ‘마스크를 사용하라.’ ‘우비를 입고 주어라’ 등의 주의사항 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수칙들은 초여름부터 농약을 주어야 하는 농부들의 현실에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 더위 죽겠는데 어떻게 우비 입고 마스크 쓰고 일을 하겠는가? 얼굴에, 몸에 흐르는 땀과 찢득하게 무더운 더위를 어떻게 견디란 말인가?

거의 모든 농부들은 무거운 농약 통을 메고 다니며 농약을 뿌리는데, 호스 구멍은 왜 그리 자주 막히는지. 그러면 통에 달린 호스를 그냥 입으로 빨아 올려 농약이 나오게 했다. 시간도 없고 마땅히 입을 씻을 물도 없어 농약을 그냥 먹은 셈이다. 농약은 이상하게 쓰러질 때까지 그것이 농약중독이라고 알 수 없다. 그냥 속이 메스거리고 어지러울 뿐. 사람들이 농약중독을 알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담배농사 할 때 그보다 훨씬 몸이 약했던 동생이 농약 중독에 먼저 쓰러졌다. 그가 담배 농사 뒤에 고추농사를 할 때다. 고추를 14단씩이나 농사지으려니 무척 바빠다.<sup>6)</sup> 무거운 농약 통을 메고 다니며, 스무날 넘어 계속 농약을 주게 되었다. 그러다 농약 통을 등에 맨 채로 쓰러졌다. 쓰러져 하늘을 보니 해가 노랗다가 캄캄하며 어지러우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하더라. 7월. 한창 벌이 짙게 날 때, 밭가에서 그렇게 누워있다 정신을 잃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집 쪽마루에 누워 있었다.

---

6) 생산자 말에 의하면 1단은 3백 평 면적으로, 고추 14단이면 4200평 정도 규모를 의미한다.

병원도 못 가고 누웠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몸에 노란 농약 기운이 출렁였다. 그렇게 며칠을 누워있으며 결심했다. “하느님, 저 이제 다시 일어나게만 해주시면 다시는 농약 쓰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제발 저를 일어나게만해주세요.” 라고. 동생도 농약에 쓰러져 고생하고, 자신도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는 무농약,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로 새롭게 태어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짓는 농사는 형편없었다. 소출이랄 것도 없었지만, 농약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웠다. ‘저거, 저렇게 마구 치면 안 될텐데…….’

한국 사회가 변화의 큰 소용돌이 속에 있던 1980년대. 가톨릭농민회는 농민들의 현실 인식을 위한 의식교육과 환경 교육을 했다. 한국 땅에서 뿌려지는 농약이 너무 많다고, 우리 농민회 농부들만이라도 농약 사용을 자제하자고 교육했다. 그렇게 농약의 피해와 무농약 농사법에 대해 배우며 환경 교육도 받았다. 교육을 받다보니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게다가 그의 몸도 농약 중독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농약 중독으로 쓰러진 후에 얼마간은 파리약 냄새만 맡아도 몸이 휘청휘청했다. 수천평의 밭에 농약을 뿌리며 지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몸이 버텨내질 못했다. 자연스럽게 그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당시에는 식량 증산이 정부 당국의 최대 목표였으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의 밭에는 빨간 깃발을 꽂아 두었다. 병충해 지역이란 표시다. 그의 동네에서도 농약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상황이었다. 농업 담당 기관에서는 농약을 사용한 논과 밭의 소출과, 그의 밭에서 생산된 소출을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양이 수확된다는 사실을 납득할 때까지 농약을 사용하라는 강제를 계속하였다. 몇 년 뒤 농약을 사용한 논과 그의 논의 수확량

을 비교해보니 겨우 몇 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제초제 등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짓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한 3년간은 식구들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수확된 것이 없었다. 겨우 겨우 어떻게 살아온 시절이었다.

힘들어도 참아가며 하는 것이 농사다.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구나 동생은 시키지도 못했다. 그래서 우연히 논에 넣은 왕우렁이가 풀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느님의 은혜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 평생에 그렇게 신기하고 기쁠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이 이곳에, 내게 맡겨주신 농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면 그렇게 생각했겠는가? 제조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농부의 감동!

당시 최재명 생산자가 가톨릭농민회에 들어간 것은 유사혁이라는 분을 통해서다. 이분은 가톨릭농민회를 농민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단체라 소개했다. 유사혁씨와의 교류를 시작하며 그도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열성적으로 한다. 음성 지역 농가가 30여 가구 정도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정부 정책 개선 투쟁에도 열을 내었다. 그 당시의 데모와 시위는 매우 격렬했고, 경찰이 동원되어 농민들을 막아섰지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에 지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농민들의 생활과 농업정책을 개선하고자 열심히 활동했다.

“무슨 사안들이 그렇게 중요했냐면, 유신헌법 철폐하라, 농지법 고치자, 수도세 내려라 했었죠. 워낙 독재정권이 농민을 억압하던 정책을 계속하던 시대였으니 뭐 맨날 반대할 일이야 많았어요.” 라고 그는 말한다. 한편, 1990년부터 공식적으로 가톨릭농민회가 생명운동을 전개하며 무농약 농사

를 장려했지만, 그와 그의 동생은 이미 80년 초부터 무농약 농사를 시작하였다. 동생이 오리농법부터 시작했지만 한 2년 하다가 수확이 없어 물러났다. 이후에 그가 무농약 농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생활태도를 바꾸고 직접 퇴비를 만들어 땅의 힘을 다시 일으켰다. 별다른 수확이 없던 3년의 시간이 지나 땅의 힘이 회복되고 수확한 작물의 양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었다.

“그 당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 양반이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이웃 논에서 도열병이 돌거나 병충해가 나면 모두 우리 집 양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였어요.” 아내의 회고다. “호호 내가 이놈의 자식들 농약만 쳐봐라. 모두 다리몽둥이 부러뜨린다 하고 다녔어요.” 그는 그때로 돌아가 얘기를 하며 다시 흥분한다. 당시 정부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의 땅에 말뚝을 박아 놓거나, 빨간 깃발을 꽂아 구분하고 그랬단다. 그러나 농약 중독을 한 번쯤 경험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논에서 농약을 치지 않아도 비슷한 수확을 거두는 것을 확인하고는 84년부터 마을의 15농가가 무농약 농사에 동참한다.

1985년 여름날 조선일보 기자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의 농사 이야기를 기사로 쓰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그런 연유로 조선일보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짓는 ‘무공해 마을’로 소개되었다. 그 글을 보고 당시, 건강 칼럼을 연재하던 안현필씨가 찾아와 환자를 위한 현미 판매를 권유한다. 현미밥과 무농약쌀로 병을 고친다는 안현필 건강연구소의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그의 현미와 무농약쌀을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는 안현필씨를 통하여 전국으로 현미 판매를 시작했다. 시중에서는 아직 무농약 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일반쌀보다도 못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수고가 많이 드는 무농

약 농업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고, 꼭 그의 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빼먹지 않고 보내주었다.

## 한살림과의 만남

한살림 故 박재일 회장과 그의 만남은 원주 소비자협동조합(現 원주 한살림)이 시작되던 1985년쯤이다. 원주에 무공해 농산물 점포를 내었던 원주 소협이 요청으로 그는 마을의 몇 농가와 함께 무농약 쌀을 원주 소협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서울 제기동에서 시작된 한살림 쌀가게에도 쌀을 공급했다. 음성의 무농약 쌀, 공근의 유정란과 채소, 원주의 참기름 등으로부터 한살림의 물품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걸음이 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절엔 무농약 쌀을 일반 쌀 보다 20% 정도 높은 가격으로 내었다. 일반 쌀의 가격은 오르고 내렸지만, 무농약 쌀은 연중 불변의 가격으로 생산자의 노고를 보장했다.

그 당시 소비자는 40여 명쯤이었던 것으로 그는 기억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 ‘너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말씀대로. 아주 적은 물품으로 시작한 한살림은 다양한 물품과 가공품, 엄청난 규모의 물품공급액수와 많은 조합원을 품은 커다란 조직이 되었다. “그때 제기동에 가보면 그 양반이 만날 빗자루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 안 되어 찾아오는 사람도 적었어요. 그래서 저 분 의지가 대단하구나 생각했어요. 가톨릭농민회 전국회장을 하셨던 분이 저리 노력하시는 거 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했지요. 가톨릭농민회 전국회장은 아주 썩렁썩렁한 자리였거든요. 그랬던 분이 이렇게 한 다니 나도 이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 초창기 생산자 간담회

그는 회상한다.

故 박재일 회장이 직접 찾아와 관계를 맺은 한살림. 그는 한살림에 무농약 쌀을 공급하다가, 사정에 의해 몇 년 간의 공백기를 가진 후 다시 한살림의 생산자가 된다. 처음 한살림을 만나며 약속했다. “박 회장님은 농촌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한살림운동을 한다 했습니다, 그 분의 분명한 의지가 하도 고마워서. 그러면 나도 평생 무농약 농사를 하겠다고 맘속으로 다짐했지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가시밭길인데…….” 했단다. 그 때의 약속은 2년 전 박재일 회장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나이 80을 바라보는 현재도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있다.

그가 약속을 어떻게 그리 굳게 지킬 수 있는지 궁금했다. “글쎄, 뭐 나는 반항한다 할까? 난 누가 시키는 것은 절대 하질 않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정권하고 가톨릭농민회는 정말 사이가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했어요.” 골수로 박힌 반골 기질이 있는가? 그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농민단체라 내세울 수 있는 단체는 가톨릭농민회 뿐이었다 할 수 있으며, 정부의 농업에 대한 간섭도 심했다, 무농약 농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초기에 참여했던 16가구 생산자 중에 이제는 3가구만 남았다. 최재명. 최재두. 최재근 생산자. 그러나 세 사람 중에 최재두 생산자는 돌아갔다. 그리고 그 아내가 한살림에 계속 고추장과 무를 물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떠나는 생산자들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나와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뿐이지요.” 그랬을 뿐이다.

그런데다 농촌 사회가 점점 품앗이 정신과 같은 공동체 문화가 없어지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원인은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 즈음, 같이 무농약 농사를 하던 동생도 몸이 약해 땅을 팔고 대소(읍내)로 이사 갔다. “나 어렸을 때, 농촌은 그래도 품앗이가 살아 있고 어른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나도 이제 혼자 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서로 힘을 모아 모내기도 함께 하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정말이다. 이제 농촌에 가보면 그저 쓸렁한 마을 모습뿐이다. 노인들이 더 많고 젊은이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농촌 현실이다.

## 협업농장

별다른 농민 단체도 없던 시절,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마을

농가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여 농사를 짓자는데 합의한다. 1987년경 최재명 생산자와 최재영, 최재두 생산자 등 다섯 가구가 모여 결성한 협업농장. 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고, 농자재와 농기계 등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공동농업 형태로 출발한다. 혼자 농사짓는 것보다 여럿이 지으면 힘도 나고, 농기계 비용도 절약하고, 일도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정신을 담은 품앗이 개념의 협업농장. 그러나 첫 해 그렇게 농사지어 본 후에 협업농장의 공동체는 깨진다. 다음 해에는 젊은 사람 5명이 모여, 2차 협업농장을 하지만, 3년 후에 공동체는 또 흩어지고. 현재는 고인이 된 최재두 생산자 등 2가구만 참여해 협업농장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왜 깨졌을까? 궁금하다.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었던 협업농장이.

“그게 참 힘든 거예요. 다 같이 일하러 가니, 첫째 밥 지을 사람이 없어요. 밥 하는 사람 정해야 하고 말입니다. 또 여기가 충북지구 카농 중심지였거든. 밭에서 일 좀 할라 그러면 카농서 책임 맡기고 불러내는 거야. 그러면 옷 갈아입고 툭툭 털고 그 카농에 간다는거야. 그러나 좌우간 남자는 나 하나라고. 배겨낼 수가 있어야지. 내가 그래 ‘홀앗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평하게 할려고 일에 대한 값을 계산 했어요. 그래서 다 함께 심었으니 자기 맘대로 무엇 하나 따 먹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호박 나물을 해 먹고 싶어도, 함께 심었으니 맘대로 할 수 없었지요. 파종도 수확도 모두 같이 해야 하나까요.” 여럿이 모여 일을 하니, 머리로 는 쉽게 해결되던 일들이, 일일이 회의와 모임을 정해 의논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이러다 보니 한 마디로 뭘지 힘든 일이 된 거다. 농사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임금관리와 농기계 사용 문제에서도 구성원들 간에 뼈격거림이 나타났다.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며 협업농장을 끌고 가는 것이 힘들게 여겨졌다.

그뿐이 아니다. “그때 저기 한살림 초창기라 여기 그 소모가 얼마 안 됐었다고요. 우리가 농토를 합치니까 면적은 굉장히 넓었거든요. 근데 일 할 사람은 적었고요. 거기다가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뭐 여기 열무 같은 거 한 번 심어다가 그걸 다 길러놓으면 겨우 몇 단만 팔아먹고는 그냥 갈아엎어야 될 정도였어요. 뭐 배추 같은 것도 몇 십 폭 팔면 또 달라는 애기가 없어요. 아 이거 이러니 가을에 가서 썸을 해보니까. 이게 뭐야, 그때 일반 품값을 만 오천 원씩 치렀는데, 우리는 품값이 삼천원도 안 돼요.” 그렇게 성공한 공동체로서의 사례를 남기지 못하고 협업농장은 저절로 도태된 셈이 되었다. 현재는 더 이상 참가하는 사람도 없다.

## 왕우렁이와의 만남

1989년. 대처에 나갔던 아들이 전단지를 갖고 돌아왔다. 거기에는 왕우렁이 요리법이 적혀 있었다. 어려서부터 물고기 등에 관심이 많았던 최재명 생산자는 그 전부터 미꾸라지 양식장을 만들기도 하고 논에서 물고기를 기르기도 했었다. 전단지를 보다가 아들에게 “이 왕우렁이 참 크다. 이거 관심 있으니 몇 마리 좀 구해줄 수 없겠냐?” 했다. 아들은 얼마 있다가 『왕우렁이 전서』라는 책부터 가져왔다. 거기에는 남미산 왕우렁이 양식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책에는 왕우렁이를 위한 보호실을 만들어야 하며, 물도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는 등, 꽤 복잡한 양식법이 적혀 있었다. 그는 “야, 이거 복잡해서 어디 키우겠냐.” 하며 책을 던졌는데, 아들은 “아버지 그거 계약하고 왔어요.” 한다. “그걸 어떻게 키우려고……. 해약하고 오너라.” “아니에요. 돈 다 주고 왔는데요.” “얼마나?” “30kg에 백만 원이요”

아뿔싸! 이제는 왕우렁이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왕우렁이는 양식장이 있어야 하고 온도도 20도를 유지해야 하는 등 꽤 까다로운 양식 조건을 필요로 한다. 왕우렁이가 그의 집으로 배달돼 온 것은 한창 추울 때인 2월이었다. 막상 도착한 것을 보니 양도 채 30kg이 되어 보이지 않았다. 시골집 방에 암만 불을 열심히 때어도 겨울에 방안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듬해 6월까지 키우고 나니, 정말 너무 힘이 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들에게 왕우렁이를 그냥 미꾸라지 양식장에 넣으라고 하니 아들은 우선 양식장에 조금 넣고 얼마쯤은 눈에 넣었다. 그리고 살펴보니, 왕우렁이가 눈에서 살며 벼 위에 알도 낳아 부화시키고 그러더라. 그리고 6월 말쯤에 눈에 나가보니, 손으로 풀을 뜯은 눈 보다, 왕우렁이를 넣은 논의 잡초가 훨씬 적었다. 희한하다 생각하고 잘 살펴니 왕우렁이가 풀을 뜯어 먹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때 “아,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큰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힘들게 손으로 풀 뜯지 말고 농사지으라는 하느님의 은혜를 잘 이용하기 위해 왕우렁이 양식장을 만들기로 결정한다. 인부들은 그 당시의 가격으로 7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그 돈이 아까워 직접 만들기로 했는데, 만들어 보니 재료비가 어찌나 비싸고 많이 들어가는지, 그냥 맡길 것을 하고 후회했다.

왕우렁이를 본격적으로 농사에 이용하게 된 시기는 1991년부터다. 왕우렁이가 풀을 먹는 것은 알았지만, 왕우렁이를 눈에 넣는 시기와 양을 알게 되기까지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다. 그 이후부터 가톨릭농민회를 통해 왕우렁이를 이용한 농법을 알리고, 안현필씨가 발간하는 『건강 다이제스

트』를 통해서도 왕우렁이 농법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왕우렁이를 이용한 조금씩 농법이 알려지자, 전남 장성에서 농사를 짓던 남상도 목사가 찾아와 그에게서 농법을 배우고 갔다. 그는 왕우렁이 농업을 열심히 보급하여 현재는 왕우렁이 사업을 아주 활발히 한다. 강화도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김정택 목사 또한 최재명 생산자를 통해 왕우렁이 농법을 배워서 농업에 이용하고 있고, 입소문을 통해 왕우렁이 농법은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왕우렁이는 물에서 크는 것이라 논에 넣어 놓기만 해도 아주 잘 산다. 왕우렁이를 이용하면 퇴비를 넣어 줘야 하지만 배설물이 또한 퇴비 역할을 하여 농사에도 작지만 도움이 된다.

그의 논에는 전체 필요한 퇴비 양의 30% 정도를 왕우렁이에게서 얻고, 나머지 70% 정도의 퇴비는 그가 따로 넣는다. 또 왕우렁이는 물을 정화하지는 못하지만 물을 소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풀을 뜯어 먹으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왕우렁이다.

왕우렁이 농법이 전국에 퍼져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부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즈음인 2005년경 환경부 조사 결과 일부 왕우렁이가 겨울에 월동하는 것이 밝혀졌다. 또 왕우렁이는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개체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논에서도 벼를 갹아먹어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005년경 왕우렁이를 놓고 몇 번의 토론회가 열렸으나 이렇다할 답은 찾지 못한채 2008년에 환경부에서 왕우렁이를 생태계 위해성 2등급으로 지정하는데 그쳤다.

기후온난화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왕우렁이가 남부지방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월동을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전국적으로 80%가 넘는 친환경

경 벼농사에 이용되는 상황에서 현재는 왕우렁이가 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등 왕우렁이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최재명 생산자도 왕우렁이를 무조건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최대한 잘 이용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우리 생활과 농사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 농부의 삶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에 쌀 한 말 들여 벼 한 말 빼먹는다는 게 있어요. 아마, 그만큼 농사 힘들게 지어도 농부 손에 남는 거는 별로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농사 해봐야 힘만 들지 보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구요.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무어든지 가만있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여 노동을 하면 조금이라도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것처럼 사람은 살아가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죠. 결과가 어떻든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다. 그렇다. 가만히 앉아 누가 먹을 것 갖다 주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게으른 사람을 보며 하는 속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는 말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농사는 어쨌든 무언가를 얻지만, 그게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것이라면 힘들다. 욕심이 있거나 헛된 것을 바라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을 바라는 사람만이 농사를 짓는다. 자신이 이 땅에 농부로 태어났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고,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에 순응하며 해야 하는 농사. 농민. 성경에는 농부에 대한 말씀이 많다. 씨 뿌리는 비유, 수확하는 비유

등. 그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거저 줘라.’ ‘꾸어주고 받으려고 하지 마라.’ 등. 성경에 적혀 있는 그런 비유를 항상 생각하는 그는, 열심히 일해 수확한 농산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겠다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공표하고 나니, 거저 달라는 사람은 없었다. 한살림의故 박재일 회장 등 여러 지인들만 ‘그러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며 염려했을 뿐. 어떻게 하겠느냐고. ‘내 농산물을 꼭 먹어야 병이 낫는다.’ 하고 돈은 없다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주는 수밖에 더 있겠냐’며 순수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땅의 작물로 사람을 먹이는 진정한 농부의 모습을 본다.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잡초 뽑고 거름을 주고 그 모든 농사일을 평생 거의 혼자서 한, 그. 그러니 우렁이가 잡초를 먹는 것을 봤을 때의 기쁨이 어떠했을까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기쁨과 더불어 하늘과 자연에 순응하며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과 기술을 이제 한살림 젊은 생산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렇게 살고 싶다 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의 다 퍼진 우렁이 농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새뱅이를 보급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을 만나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자신이 만난 생산자들에게 부족한 면은 채워주고, 그곳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면 다시 이곳에 알려주기도 하면서 말이다.

## 새뱅이 이야기

아주 작은 분홍빛 새우, 우리말로 ‘새뱅이’를 그는 자신이 만난 또 다른 보물로 생각한다. 새뱅이는 우렁이 양식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양식장에 이끼가 끼며 새우 같은 것이 생기고, 거기서 새뱅이만 골라내어 키운



▲ 최근 관심을 갖고 키우는 새뱅이를 보여주는 최재명 생산자

다. 새뱅이는 우렁이가 내놓는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함유된 액을 먹으며 자란다. 사료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란다. 봄에 양식장에 넣었다 가을에 떼내면 꽤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 성근 바구니나 플라스틱 바구니로 새뱅이를 그냥 건져내면 된다. 현재, 왕우렁이는 너무 많이 보급된 면이 있으나 새뱅이는 아직 전망이 밝은 편이다.

그가 새뱅이를 찾은 지는 한참 되었다. 왕우렁이 농법을 할 때부터 매일 논에 나가 찾아봤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새뱅이를 봤다 하며 아내에게 갖고 왔다. 그때부터 새뱅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무어든지 물고기 종류를 보면 재미있고, 한참을 관찰하고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 왕우렁이와 함께 새뱅이 양식에 열정을 내고 있다. 이제 어느 만큼의 양을 양식해 냈다고 그는 생각한다. 한살림 물품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었기

에 물품공급이 실현되기를 원하며 더욱 노력하고 있다.

새뱅이는 무와 함께 된장을 풀어 넣은 국에 넣으면 아주 맛있다. 자연산 새뱅이와 왕우렁이의 점액질로 키운 양식 새뱅이는 맛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새뱅이는 이제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 음식에 넣으면 달고 깊은 맛이 우러나며 국물을 맑게 한다. 그가 어릴 때, 감기몸살로 누워있어도, 엄마가 새뱅이 한 줌 넣고 끓여준 된장국을 먹으면 거뜬히 나았던 기억이 선명하다고 말한다. 새뱅이는 젓갈을 담거나 찌개 등으로 요리해 먹어야 제 맛이 난다.

## 한살림 이야기

그는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 실무자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인데, 신뢰를 만들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 번 쌓은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고,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잘 운영했으면 하고 바란다. 규모가 큰 단체보다는 작더라도 서로 믿고 도우며 아끼는 단체가 더 좋다. “사실, 욕심을 낸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 반 이상이 한살림 조합원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회도 정치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한살림 생산자는 생산방법에 있어 투명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농약을 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결심했으면, 어떤 경우라도 그러지 말아야 하고, 물품을 정직하게 사용해 가공품을 만들겠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이니까 ‘이번만…….’ 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유혹을 이겨내, 서로 맺은 신의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논농사에 있어서도 제초제를 사용하면 개구리밥이나 이끼도 끼지 않는다. 물이 그냥 맑다고. 그런 것은 농사짓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다며, 모든 것에서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 그런 것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랑의 마음이라 한다.

그는 “서로가 우리들이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만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만족하지 않는가!’ 라는 말이 있잖아요. 쌀 밥도 고기도 아닌 나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라고 말한다. 고기와 생선도 아닌 겨우 나물을 먹으면서도 살림이 이만하면 족하다고 했다. 그렇게 소박한 마음으로 만나고 정을 나누는 한살림 사람이기를 바란다.

정규 학교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닌 그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온 말씀은 사랑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 이해하면 그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벗이 누구냐면 가깝게 있는 사람이 벗이라는 말도 있고. 생각해보면 서로다가 멀지 않은 곳에 모여 살며 자주 왕래하고 그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 천주교에 입문하면서 읽은 교리문답과 매일 하는 성경묵상을 통해 알게 된 단순한 진리. 사랑. 그래 서로 사랑하자.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신비하다 느끼고 생각하는 그. 본인 인생 전체의 일도 사랑으로 일어난 신비.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게 한 신기함, 은혜. 당신은 별로 한 일 없이, 눈에 모 한 포기 꽃아준 것 밖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걸 키워주는 것은 하느님이다. 사랑이다 말한다.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라 생

각하면 그저 신기할 뿐이다. 왕우렁이 양식장에서조차, 요즘 열심히 키우고 있는 새뱅이 양식장에서조차 생각하면 그렇다. 그는 그저 그곳에 있는 양식장에 넣어줬을 뿐인데, 저절로 크고 새끼 치고 하는 것을 보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 생명의 신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떻게 보면 농사꾼은 신비 속에서 농사를 짓고, 그런 걸 키우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향 땅을 떠나, 어디 더 좋은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았어요.” 세상에! 한 여름 땀방울, 잡초를 뽑느라 손이 다 갈라지고, 악수를 하자며 쥘 그의 손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그토록 힘든 농사일이 그저 신비하게 느껴지고 힘도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 이래서 우리는 농부의 삶을 존경하고 이런 마음으로 농사짓는 생산자분들을 인생의 스승으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된다.

그는 한살림 조합원에게 이런 것을 바란다.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생산자들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 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 알고 상대가 알아주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저 수고한다는 그 말, 한 마디만 해주면 생산자들의 마음이 참 좋을 거예요. 기쁠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의 농사를 맡겨, 농사 기술도 다 전수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다. 전국을 다니며,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부가 있으면 돕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직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도, 또 그러고 싶지도 않기에. 그에게 주어진 일인 농사를 열심히 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또 다른 보물인 새뱅이를 정성을 다 해 양

식한다. 한살림의 반듯한 물품으로 공급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열을 가지고 키운다. 

**왕우렁이는?** 열대지방이 원산지, 식용을 목적으로 1980년대 초 한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왔다. 1991년경 국내 최초로 최재명 생산자에 의해 논·밭의 제초작업에 이용된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8년 환경부가 왕우렁이를 생태계 위해성 2등급으로 분류했지만, 2009년 현재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약 80%가 왕우렁이를 이용하고 있다.

**새뱅이는?** 새우의 충청도 사투리로, 한국 토하것의 원료가 되는 민물 새우의 일종이다. 생이과에 속하는 새우로 얼룩생이족에, 제주새뱅이, 중국새뱅이, 새뱅이. 생이 족에 생이 새우가 있다. 크기는 3-4cm. 새우의 등이 많이 굽어 있으며 이마의 뿔도 깊다. 독성물질민감도가 높아 독성 시험 중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최재명 생산자 약력

- 1935년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남.
- 1940년 증조할머님 돌아가심.
- 1948-49년 동네에서 한글 배움.
- 1952년 반병혜님과 결혼.
- 1954년 군 입대. 장녀 출산.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가 됨.
- 1958년 군 제대.
- 1959년 아버지 돌아가심.
- 1962년 천주교 세례 받음.
- 1960년대 소작농사.
- 1970년대 유사혁 씨를 통해 가톨릭농민회에 들어감.
- 1978년 동생이 농약 중독으로 쓰러짐.
- 1980년 담배밭에서 메타시독스를 뿌리다가 농약중독으로 쓰러진 이후 무농약 농사를 시작함.
- 1981년경 둘째 아들 타계.
- 1984년 어머니 돌아가심.
- 1985년 조선일보 7월 14일자 신문에 무공해마을로 소개됨.  
건강 다이제스트의 안현필씨가 찾아 옴.
- 1985년 故 박재일 회장과 이상국 대표 만남.
- 1985년 원주 한살림에 쌀 공급.
- 1986년 제기동 한살림 농산에 쌀 공급.
- 1987~89년경 협업농장을 시작하게 되나 1년 만에 깨짐.
- 1992년 본격적인 왕우렁이 농법 시작.
- 1993년 안현필씨를 통해 쌀을 출하함.(2000년대 초반까지)
- 2003년 대통령 포장 수상.
- 2011년 현재도 계속해서 새뱅이 양식을 연구하며,  
왕우렁이 양식과 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음.

## 인터뷰 참가자들의 후기

### 윤선혜 (한살림서울 조합원)

사람은 때로, 어리석어 누군가가 부추기면 어떤 일을 과감히 한다. 자신의 헛된 욕심과 망상을 모른 채 하며, 그것이 그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려운 일이라 알면서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많이 부족한 글이다. 그러나 1세대 생산자들을 새롭게 만나고 알게 되어 가는 기쁨을 가지고 쓴 글이다. 어린 사람이 능력에 부친 일을 맡아, 그것을 뛰어넘고자 애쓰고 고민하며 쓴 글이기도 하다.

한살림 농부는 그냥, 지고지순한 이 땅의 농사꾼이다. ‘지고지순’ 분명 진부한 표현이다, 그런데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들을 생각하면 그렇다. 그들은 생명과 그들이 키우는 작물에 대한 생각만으로 한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하나의 작물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을 결코 후회한 적이 없다. 이런 한살림 1세대 생산자가 있었기에, 2세대, 3세대 생산자가 계속 나올 수 있었다. 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글에서는 ‘그’라는 인칭을 사용했으나, 내게 있어, 그들은 언제나 ‘선생님’이다.

한살림 1세대 생산자. 그들이 정성을 다해 키운 작물을 내주어, 우리 생명을 길러 주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좀 더 밝아졌고, 이 세계가 더 좋아졌다고 믿는다. 어떤 의미로 나는 건방진 조합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먹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조합원. 그런 내가 그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땅에 그들이 있고, 한살림으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들판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 고맙습니다. 🌱

## 서형숙 (전 사단법인한살림 부회장)

뒤늦게 합류한 탓에 정광영, 최재명 생산자는 놓치고 강수옥, 이영민 생산자와 만날 수 있었다. 이번에 따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1989년부터 인연이라 한 분 한 분 소설 같은 삶을 오랫동안 듣고 보았던 터이다. 더 깊이 듣고 보니 감회가 새롭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생산자들이나 소비자 조합원들이 만나는 시간은 마치 해로운 부부가 마주하는 모습 같았다. 반기고 여유롭고 그래서 기뻐다. 소쩍새가 울고 천둥 번개가 친 후 핀 국화꽃의 성숙한 아름다움이 생산자나 소비자 서로에게 배어있었다.

네 분 성공한 생산자들은 부부 금슬이 참 좋다. 어느 가정이나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한다. 고집스럽고 결단력 있게 앞서가는 남편의 일을 아내는 무조건 따른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타박하거나 탄죽 걸지 않고 내조했다. 그러니 늘 가정이 평화로웠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다. 자신감이 있다. 날마다 꿈꾸고 앞으로 나아갔다. 하루 한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공통적으로 그랬다. 꿈을 꾸다는 것, 그걸 더 나은 방향으로 실현한다는 것, 그 현실을 음미한다는 것. 그게 굉장한 힘이 되어 그들을 건강하고 강인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들의 힘의 원천이다. 그 힘은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이 몸으로도 전해진다. 대담시간, 참 좋은 느낌, 경험이었다.

한살림에 좀 서운한 게 있었던 이영민 생산자는 처음엔 대담자들을 피하고 흘대하듯 하셨는데 결국엔 밤 12시가 넘도록 한살림과 EM농법 이야기

로 꽃을 피우셨다. 한살림 덕에 오늘까지 농사를 지었던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오히려 행복했던 순간을 찾아내 행복해 하셨다. 오래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니 그간 잊어졌던 좋은 과거도 찾게 마련이다. 이영민 생산자가 얼마나 한살림적이었던가, 그 분도 우리도 안다. 멀리 제주까지 찾아간 조합원을 외면하려해도 끄떡 않고 바짝 다가가 그간의 노고를 되뇌 조합원, 오래전처럼 멀리서 온 손님을 정성으로 밥 대접하던 생산자가 계셨기에 가능했다. 양금도 푸는 한살림 정말 대단하다! 🍌

-

## 하선주 (전 한살림서울 이사장)

내가 한살림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 자신에 대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농사를 지어준 농민이나, 농촌이나 농업에 대해서 한 번도 정말로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랬었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었을 때 매우 부끄러웠던 기억이 난다. 그 후에 먹거리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에 오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지만...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면서, 농촌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민은 희생자가 되었던 것이다. 농민이 희생자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한살림 안에서는 생산자 자신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가졌던 생각이라고 본다. 그래서 도시의 소비자인 우리들은 농촌의 생산자들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생산자 구술 조사를 위해 오랜만에 오래된 생산자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분들은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간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갔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만났던 생산자들은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희생자들이 아니었다. 그 분들은 건강했고, 당당했고,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이다!

그 들은 그간에 어떠한 고통이 있었을 지라도 결국 ‘나는 농민으로서 좋은 삶을 살았다. 지금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인

터뷰하는 내내 우리들은 그들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그런 자부심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누구나 벗어나고 싶어 하는 농촌에서, 이제 농사는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마당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의 삶에는 몇 가지 공통된 점이 보인다. 첫째, 그 분들은 하나같이 삶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옆에서 지지해주는 배우자와 가족이 있다, 그래서 이영민 생산자는 젊은이들이 농촌에 오려면 결혼해서 반드시 부부가 같이 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 그분들에게는 한살림이라는 고마운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참여했던 세 분 생산자들의 인터뷰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사실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그분들의 아버지들 모두 가정에서 한심할 정도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일찍 돌아 가셨다는 사실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 결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수고는 온전히 어머니의 몫으로, 그 힘겹고 애처로운 농촌의 어머니들을 어린 아들들은 지켜봤었다. 그래서였는지 우리의 남성 생산자분들은 대체로 아내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고 어쩔든 혼자서 농사일을 해내려고 애썼던 것 같다.

끝으로, 이번 한살림 생산자 구술정리 작업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최근 들어 1세대 생산자분들이 여러분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 어렵게 시작한 이 일을 중단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야 한다. 여건이 안 된다고 지금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이루어낸 다양한 친환경농법들도 늦기 전에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윤선주 (한살림연합 이사)

오랫동안 필요하다 생각은 하면서도 선뜻 시작하기 어려웠던 일을 함께 하게 되어 즐겁고 보람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놓친 분들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살림 안에서 늘 곁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 좋았고 생산자 분들과 여러 차례 만나 볼수록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마치 동지를 만난 듯 푸근했습니다.

그 분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얼마나 치열하게, 옆을 두리번거리거나 이곳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곳을 꿈꾸기보다는 자신이 태어나고 사는 곳에 단단히 뿌리 내린 모습만으로도 저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리 살았냐고 물으면 아주 쉽게 대답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기대하고 물었던 우리가 쑥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생각한 대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는 표정으로 술술 나오는 대답에 기가 죽기도 했지요. 하나 같이 눈빛이 마치 속을 훤히 꿰뚫는 것처럼 빛나면서도 어찌면 그리도 따듯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마음이 것처럼 넉넉해 앞으로의 희망을 물으면 입이라도 맞춘 듯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나누고 싶어 하는지, 돌아오는 길은 늘 부러움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참 스승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깨우침을 주는 법! 달변이 아니어도 굳이 설득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그냥 마주앉아 밥 한 그릇 비우면,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기특한 결심을 하게 되는 시간을 이 작업을 하면서 자주 가졌습니다. 네 분 생산자 부부 모두 해로 하시는 중이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을 자주 돌아본 것도 커다란

수확이었습니다.

이 작업에 같이 하지 못 하신 분들도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맛보았던 기쁨과 보람, 배움을 같이 느끼시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

## 함께한 사람들

권옥자 (한살림서울 홍보위원장)

김미화 (전 한살림경기남부 이사장)

김선미 (살림이야기 편집위원)

서정호 (한살림생산자연협회 전국사무처 부서장)

서형숙 (전 사단법인한살림 부회장)

윤선주 (한살림연합 이사)

윤선혜 (한살림서울 조합원)

이경란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전홍규 (한살림서울 홍보기획팀 실무자)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정영미 (한살림경기남부 홍보위원장)

하만조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원)

하선주 (전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402호

전화 | 02-6931-3606~9 | 전송 | 02-2269-1309

블로그 | <http://www.mosim.or.kr> | 전자우편 | [mosim@hansalim.or.kr](mailto:mosim@hansalim.or.kr)